

2025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1. 개요	1
가. 시장 전망	1
나. 주요 경제지표	1
2. '25년 주요 이슈 및 전망	3
가. 2025년 인도네시아 신정부 출범	3
나. 신수도 이전 사업 2단계 진입 (2025~2035년)	4
다. 지속되는 산업 고도화 정책과 자국 생산 강화 기조	6
다. 글로벌 할랄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움직임	7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9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9
가. 정치 환경	9
나. 경제 환경	11
다. 산업 환경	14
라. 정책·규제 환경	18
2. 시장 분석	31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31
나. 교역	34
다. 투자	43
라. 프로젝트	47
마. ODA	51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55
가. 교역	55
나. 투자 진출	58
다. 협력 유망 분야	60
III. 진출전략	63
1. PEST 분석	63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64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65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 (상품)	78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 (서비스)	82
첨부 3. '25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84
첨부 4. '25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85

1. 개요

가. 시장 전망

□ 일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2025년 인니 경제는 2024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신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 2024년은 조코위 정부 집권 10년의 마지막 해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컸음
 - 2024.10월 취임과 2025년을 기점으로 프라보워 정부의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어 경제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됨
- 2024년 하반기 금리 인하로 민간 구매력이 회복되고, 제조업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은 2025년 인니 경제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구	백만 명	263	265	268	270	275	277	280	282
명목GDP	십억 달러	1,042	1,119	1,059	1,186	1,319	1,371	1,476	1,614
1인당 명목GDP	달러	3,960	4,220	3,919	4,358	4,799	4,942	5,271	5,714
실질성장률	%	5.2	5.0	-2.1	3.7	5.3	5.0	5.1	5.1
실업률	%	5.3	5.2	7.1	6.5	5.9	5.3	4.8	4.9
소비자물가상승률	%	3.2	2.6	1.7	1.9	5.5	3.7	2.6	2.7
재정수지(GDP대비)	%	-1.8	-2.2	-6.1	-4.6	-2.4	-1.7	-2.4	-2.7
총수출	백만 달러	180,013	167,683	163,192	231,610	291,852	258,774	265,243	279,301
(對韓 수출)	"	9,540	7,234	6,508	8,982	12,809	10,301	10,559	11,118
총수입	"	188,711	171,276	141,569	196,190	237,447	221,886	228,543	238,827
(對韓 수입)	"	9,089	8,421	6,849	9,427	11,117	10,526	10,842	11,330
무역수지	백만 달러	-228	3,508	28,301	43,806	62,672	36,933	36,701	40,474
경상수지	"	-30,633	-30,279	-4,433	3,511	13,126	-1,567	-13,161	-20,520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4,237	14,148	14,582	14,308	14,850	15,237	15,770	15,800
해외직접투자	백만 달러	6,399	4,463	5,033	3,927	6,635	7,128	7,000	6,000
외국인직접투자	백만 달러	18,910	24,994	19,175	21,213	24,702	21,894	23,500	24,000

주: 2024년 및 2025년은 전망치 기입, 對韓 수출입은 총수출입 증감률을 반영해 산출
 자료: EIU, 인도네시아 통계청(對韓 수출입)

2. '25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10년 만에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조코위 정부의 주요 정책이 계승될지에 주목 필요

- 차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사업 환경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 2단계에 진입하는 신수도 이전 사업, 향후 민간 유치 성과에 주목 필요
- 거시적인 흐름에서 자국 산업 고도화를 추구하는 기조는 유지될 것

가. 2025년 인도네시아 신정부 출범

□ 2024.2월 대선 결과,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제8대 대통령으로 당선

- 58.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으며, 10월 20일 자카르타에서 취임식 진행
 - 차기 정부는 조코위 정부의 주요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함
 - 광물 다운스트림 육성 정책과 전기차 산업 육성 등 조코위 정부의 주요 정책들은 거시적인 흐름에서 연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정책별 구체적인 내용은 신정부 출범 이후 발표 예정
 -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무상급식 정책 또한 2025년부터 시행 예정
-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예산안 초안에 무상급식 정책 예산으로 약 6조 원 신규 편성
- 차기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세부 정책 방향이 확정되면 그동안 정치적 리스크로 유보되었던 국내외 기업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인적 자원 개발, 보건·복지, 식량 안보를 차기 정부의 중점 분야로 선정함
 - 교육 분야와 식량 안보 부문 예산 증액이 두드러지며, 인적 자원 개발과 삶의 질 향상이 주요 목표로 분석됨
 - 신정부의 주요 공약인 무상급식 예산이 교육 부문에 편성되었으며, 100% 무상급식 시행에 필요한 자금은 매년 450조 루피아(약 286억 달러)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교육 예산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2025년 인도네시아 주요 분야별 예산 배정〉

분야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초안	
		예산	증가율
교육	660조 루피아 (약 437억 달러)	723조 루피아 (약 478억 달러)	9.5%
보건	186조 루피아 (약 124억 달러)	198조 루피아 (약 131억 달러)	6.5%
복지	493조 루피아 (약 326억 달러)	505조 루피아 (약 334억 달러)	2.4%
인프라	422조 루피아 (약 279억 달러)	400조 루피아 (약 265억 달러)	-5.2%
식량 안보	108조 루피아 (약 71억 달러)	124조 루피아 (약 82억 달러)	14.8%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

나. 신수도 이전 사업 2단계 진입 (2025~2035년)

□ 신수도 이전 사업은 자카르타에서 칼리만탄의 누산타라로 행정 수도를 이전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인도네시아의 국가 프로젝트

- 총 비용은 466조 루피아(약 300억 달러)이며,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 20%를 투입하고, 나머지 80%는 해외투자를 포함한 민간자본 조달 계획

- 신수도 이전 사업은 총 4단계로 구성되며, 2024년까지 1단계 개발 완료를 목표

〈인도네시아 단계별 신수도 이전 계획〉

단계	연도	목표	세부 내용
1	2020~2024	초기 단계 이전	- 핵심 인프라 구축 단계 - 초기 단계 공무원 이전 - 50만 주민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24년 8월 16일 이전 대통령궁 입주 - '24년 8월 17일 제79주년 독립기념식 개최
2	2025~2035	핵심 영역으로 구축	- 도시 개발 단계 - 정부 부처 이전 완료 - 우선 경제 부문에 대한 개발 및 인센티브 실행 -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
3	2035~2045	모든 기반 시설 및 생태계 개발	- 완전한 연결 구축 단계 - 우선 경제 부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1위 목표 - 동남아 지역에서의 관광객 유치 상위 5위 도시 목표 - 순환 경제 시행 - 인재 개발 및 혁신센터 개발
4	2045 이후	A Global City for All	- 전 세계 모두를 위한 세계 일류 도시로 도약 -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도시 상위 10위 목표 - 탄소 배출 제로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률 100% 달성

자료: 인도네시아 신수도청

• 신수도 개발 콘셉트는 ‘Future Smart Forest City’로 선정

- 21세기 지속 가능한 스마트 열대우림 도시 콘셉트로 2045년 탄소 중립 도시 구축 목표

〈신수도 개발 콘셉트 세부 내용〉

		
<p>신수도 누산타라는 75% 이상을 녹지로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수도 개발은 총 면적 중 25%만 사용 -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나머지 75%는 녹지(숲)로 보존될 예정 	<p>80%의 누산타라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이용에 대한 규칙 적용 - 누산타라의 교통수단은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운영 	<p>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탄소 배출 감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광, 풍력 및 가스등 같은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수요의 100%를 충족 예정

자료: 인도네시아 공공주택부 인스타그램

• 2024.8월 기준, 1단계 개발 목표 중 90% 완료

- 조코위 대통령은 7월 말부터 누산타라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8월 17일 독립기념일 행사를 누산타라와 자카르타에서 동시 진행
- 민간에서 약 56조 루피아(약 35억 달러)를 투자하여 55개 프로젝트 진행 중
- 신수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1단계 개발 목표의 90%를 달성하였으며, 2024년 내 예정대로 1단계 개발 마무리
- 2단계에서는 물리적 기반 구축을 넘어 경제 및 사회적 인프라를 강화하여, 도시가 자립하고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

□ 향후 민간 투자 유치 확대가 프로젝트 성공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 2024.8월 기준, 정부 재원으로 83조 루피아(53억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민간 재원으로는 56조 루피아(36억 달러)가 투입되었음

- 정부 재원이 총 사업비의 20%인 93조 루피아(59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민간 투자 유치 규모가 사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현재까지 신수도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기업 위주, 외국 기업들도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실제 투자로는 많이 이어지지 않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규정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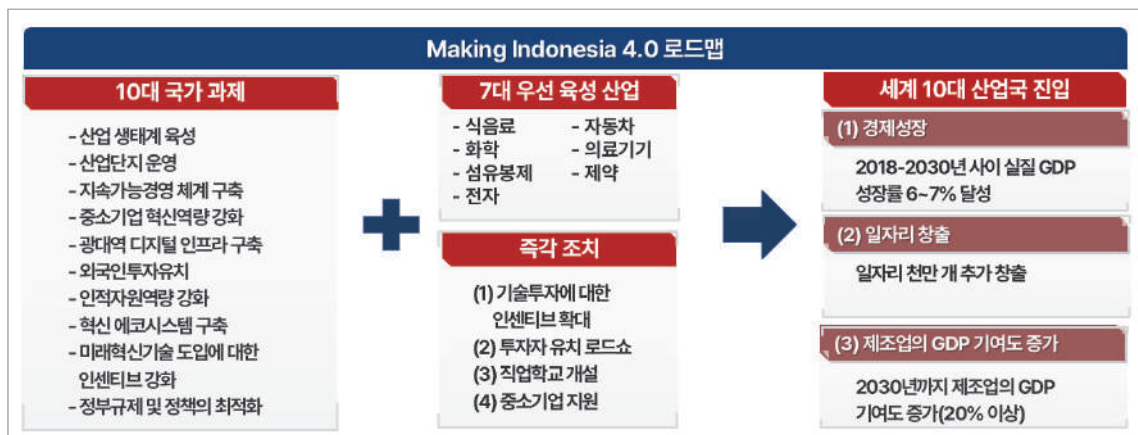
- 2024.7월 ▲투자자 인센티브 ▲토지사용권 ▲건물 사용권 ▲공공 및 상업시설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 제75호 발표

다. 지속되는 산업 고도화 정책과 자국 생산 강화 기조

□ 자국 내 생산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고도화된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지속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4.0’ 로드맵을 수립하고 7대 중점 육성 산업을 선정하여, 산업 고도화를 위한 유망 제조업 육성 정책을 지속 추진

〈인도네시아 4.0 로드맵〉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종합

- 한편,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4.0’과 함께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해 수입품을 대상으로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다양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 2023년 원자재와 중간재에 대한 수입 규제를 시행하였으며, 2024.3월부터는 이를 완제품까지 확대하여 화장품, 가방, 철강 제품 등 18개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
-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국산 부품 사용 요건(TKDN)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 4.0 중점 산업 분야에서 TKDN 요건이 강화되고 있음

*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사륜차 이상의 경우 2026년까지 TKDN 요건을 40%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2030년부터는 8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임

** 의료기기의 경우 '22년에 TKDN 적용 품목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수입 제품을 현지 생산 제품으로 대체하거나 부품을 들여와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임

-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다운스트림 정책을 추진, 그 일환으로 원광 수출 금지 시행**
 - 인도네시아 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현지에서 제련 및 가공을 거친 제품만 수출이 허용됨
 - 2020년 니켈 원광 수출 금지를 시작으로 2023년 보크사이트 수출을 금지하였으며, 구리, 철, 납, 아연 정광에 대해서는 2024.12월까지 수출이 허용됨
 - 장기적으로 원광 수출 금지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광물 자원 가공 산업을 발전시키고, 부가가치가 높은 중간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업 고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 인도네시아 정부는 ‘옴니버스법’을 제정하여 투자, 노무, 세무 분야를 포함한 78개의 기존 법률을 일괄 개정 및 삭제함.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 분야를 개방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며, 최저임금 제도를 간소화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및 특별경제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있으며,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다. 글로벌 할랄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움직임

□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를 바탕으로 할랄 표준을 선점하고, 글로벌 할랄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 중

- **할랄 산업 육성을 위해 할랄 인증이 의무화되어 인도네시아 영토에 반입, 유통 및 판매되는 제품은 반드시 할랄 인증 취득 필요**
 - 하람 제품의 경우에는 식약청의 라벨링 표시 규정에 따라 “돼지 파생 재료 포함”, 알코올 잔류량 등 표기하여 유통해야 함
 - 하람 원료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 중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확연히 확인 가능하도록 포장지 정면부에 “NON HALAL”이라고 표기하여 유통해야 함
 - 2024.10월 식음료품을 시작으로 화장품, 의약품, 가정용품 등으로 확대될 예정
 - 다만 인니 정부는 현지 소기업 및 영세기업,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된 식음료의 경우 최대 2년 할랄 인증 의무를 유예함. 중견 및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식음료, 도축 서비스에 대해서는 10월 18일부터 할랄 인증 의무화를 이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식음료 제품들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도 유예되었음(최대 2026년 10월 17일까지)
 -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인도네시아산 할랄 제품에 대한 글로벌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함

〈품목별 계도기간〉

품목 유형	계도기간
식품(식음료)	2019.10.17~2024.10.17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식품	2021.10.17~2026.10.17
의약외품(OTC)	2021.10.17~2029.10.17
향정신성 의약품 제외 의약품	2021.10.17~2034.10.17
화장품, 화학, 유전공학제품	2021.10.17~2026.10.17
의류, 헤드기어, 액세서리	2021.10.17~2026.10.17
가정용품, 이슬람 종교의식 도구, 문구류, 사무용품	2021.10.17~2026.10.17
의료기기(A등급)	2021.10.17~2026.10.17
의료기기(B등급)	2021.10.17~2029.10.17
의료기기(C등급)	2021.10.17~2034.10.17

자료: 2021년 인도네시아 정부령 제39호

- 이에 더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 할랄보장청(BPJPH)을 종교부 산하에 신설하여 할랄 인증 관련 업무를 정부 기관이 직접 관리하고 있음
 - 이전에는 할랄 인증 관련 업무를 종교 기반 비정부 단체인 이슬람평의회(MUI)가 담당하였으나, 이를 할랄보장청으로 이관하여 명확한 법률을 통해 할랄 인증 체계를 구축함
 - 또한 인도네시아 할랄보장청은 다양한 국가들과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하여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통해 글로벌 할랄 시장에서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고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를 세계 할랄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 계획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할랄 산업 마스터플랜 2023-2029를 발표
 - ‘할랄 산업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라는 비전 아래 글로벌 할랄 시장에서 인도네시아의 위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할랄 산업 마스터플랜 2023-2029 전략 및 주요 프로그램〉

전략	프로그램
① 생산성 및 경쟁력 증가	① 할랄 밸류체인 강화 ②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육성 ③ 할랄 산업 지원(중소기업, 무슬림 교육기관 포함) ④ 연구 강화 및 혁신 추구
② 금융 및 인프라 강화	⑤ 포괄적 이슬람 금융 지원 ⑥ 할랄 산업 인프라 강화 ⑦ 할랄 산업 지표 및 데이터 관리
③ 정책 및 규제 실행·강화	⑧ 정책 및 규정 지원을 통한 산업 강화 ⑨ 할랄 제품 보증 시스템 시행
④ 할랄 브랜드 및 인식 개선	⑩ 홍보와 교육을 통한 할랄 브랜드 강화 ⑪ 할랄 산업 국제 경제 외교 관계 강화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정리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25년 신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예정

- 현 정부 정책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당선인이 강조했던 무상급식 프로그램 등 진행에 따라 세부적인 환경 변화 예상

가. 정치 환경

□ 프라보워 수비안토 현 국방부 장관, 인도네시아 8대 대통령으로 당선

-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인도네시아 전체 38개 주 중 36개 주에서 1위를 차지하여 득표율 58.6%로 제8대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 당선
 - 프라보워 대통령은 2014년과 2019년에 그린드라당(Gerindra)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하였으며, 세 번째 도전 끝에 대통령에 당선
 - 신정부는 2024년 10월 20일 자카르타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하며 업무 개시

〈제8대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 결과〉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아니스 바스웨단	프라보워 수비안토	간자르 프라노워
24.9%	당선 58.6%	16.5%

자료: 현지 언론 종합

- 조코위 前 대통령 및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가 프라보워 당선의 주요인으로 분석됨
 - 임기 말까지 8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조코위 대통령이 프라보워를 비공식적으로 지지함에 따라

조코위 대통령 지지층 상당 부분을 프라보워가 흡수

- 프라보워는 기존 강성 이미지 탈피를 위해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친근하고 포용적인 이미지로 리브랜딩하며 젊은 층 공략





□ 프라보워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제고를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강조해왔던 무상급식 프로그램도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

- 프라보워 대통령은 카타르 경제포럼(2024.5월)에서 취임 후 2~3년 내 경제성장을 8%를 달성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국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힘
 - 다만 확장적인 재정정책 운용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면서도 재정 적자 규모는 현 인도네시아 재정 준칙인 GDP의 3% 이내로 관리할 것이라고 언급
- 한편 프라보워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무상급식 정책을 반영하여 인니 정부는 2025년 예산안 초안에서 약 6조 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신규 편성
 - 국가영양청(National Nutrition Agency)을 설립하였으며, 해당 청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이슬람 기숙학교 학생과 임산부,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
 - 2029년에는 모든 아동과 임산부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며, 100% 무상급식 시행 시 필요한 자금은 매년 450조 루피아(약 287억 달러)로 예상됨
- 또한 조코위 前 대통령 주재로 신수도에서 처음 개최된 내각회의(2024.8.12.)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신수도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힘

□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총선 결과, 여당 투쟁민주당(PDI-P)이 제1야당으로 변화

- 조코위 前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여당 후보가 아닌 프라보워 당선인을 지지하면서 투쟁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변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함
 - 향후 프라보워 행정부가 제1야당과 어떤 관계를 구축해 국정을 운영할지에 귀추가 주목됨

〈2024년 인도네시아 주요 정당 총선 결과〉

			
투쟁민주당(PDI-P)	골카르당(Golkar)	그린드라당(Gerindra)	국민계몽당(PKB)
득표율 16.7%	득표율 15.3%	득표율 13.2%	득표율 10.6%

자료: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

나. 경제 환경

□ 2024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4.7~5.5% 성장할 것으로 기대, 일부 변수 상존

- 2023년 인도네시아는 5.05% 성장하였으며, 2024년에도 견고한 성장세는 이어질 전망

* '24년 분기별 GDP 증가율(%) : (1분기) 5.11% → (2분기) 5.05%

- 2024년 2월 대선 및 총선, 11월 지방선거 시행에 따른 정부 지출 증가가 인도네시아 경제의 총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 '24년 분기별 정부 지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 : (1분기) 19.9% → (2분기) 1.42%

- 물가 안정에 따른 민간 소비 확대 및 외국인 관광객 수 회복으로 견고한 성장 예상

* 물가상승률(%) : ('20년) 1.68 → ('21년) 1.87 → ('22년) 5.51 → ('23년) 2.61 → ('24.9) 1.84

** '24.8월까지 누적 외국인 관광객 유입 수 : 909만여 명 (전년 동기 대비 +20.4%)

〈전 세계 주요 지역 및 국가 경제 성장 추이 및 전망〉

(단위: %)

지역/국가	2022	2023	2024	2025
전 세계	3.5	3.3	3.2	3.2
선진 시장	2.7	1.7	1.8	1.8
신흥 시장	4.0	4.4	4.2	4.2
아세안 5개국	5.5	4.0	4.5	4.5
한국	2.6	1.4	2.4	2.1
인도네시아	5.3	5.05	4.7~5.5%	4.8~5.6%

자료: IMF(2024.10), 한국은행(2024.8), 인도네시아 중앙은행(2024.8)

-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중산층 비중 감소, 구매자관리지수(PMI) 하락은 향후 주목 필요

-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성장을 둔화에 따른 구매력 약화 우려

* 미국 ('24)2.8 → ('25)2.2 ** 중국 ('24)4.8 → ('25)4.5 *** 일본 ('24)0.3 → ('2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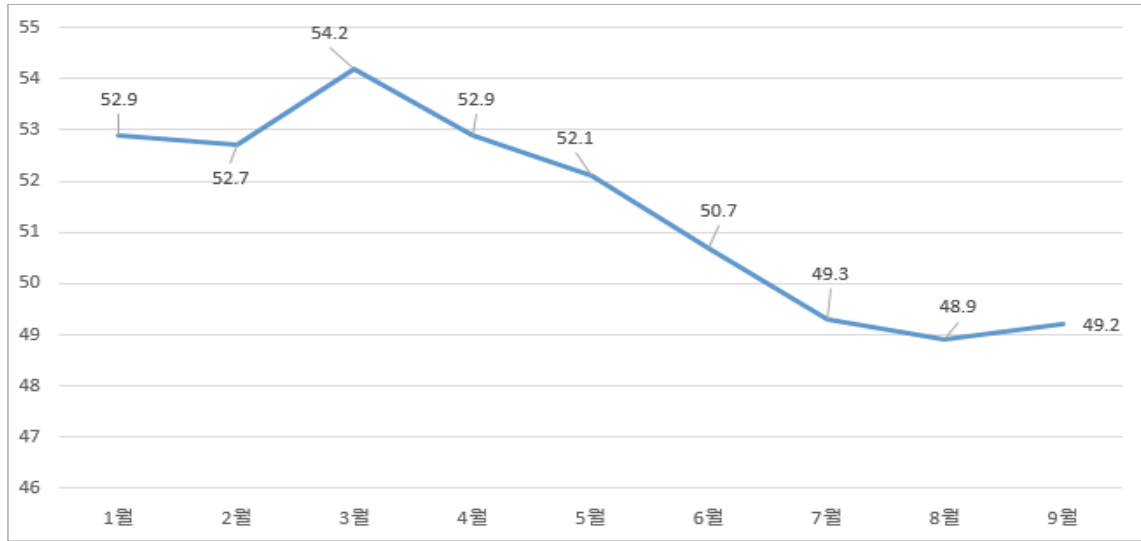
** '24.8월 기준, 인도네시아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對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

-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중산층 비중은 2019년 21.4%에서 2024년 17.1%로 감소했으며, 취약계층 비중은 20.6%에서 24.2%로 증가. 이로 인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민간 소비가 장기적으로 위축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인도네시아 구매자관리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 PMI)가 2024.3월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7월부터는 경기 위축 국면에 진입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美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직전인 2024.9월 기준금리를 6.0%로 25bps 인하함

〈2024년 인도네시아 PMI 지수 추이〉



자료: Trading Economics

□ 5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다만 흑자 규모는 점차 축소 중

•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 중이나 흑자폭은 전년 대비 감소

- 2024.1~9월 총수출액은 1,928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20억 달러 수준

〈인도네시아 수출입 통계〉

(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2023.9(누적)	2024.9(누적)	증감률
수출	1,922	1,928	-
수입	1,645	1,708	-
무역수지	277	220	-21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 2024.9월 기준, 인도네시아 수출액 1위 품목인 석탄(HS 2701)은 국제 가격이 하락하여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

* '24.10월 기준 글로벌 석탄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5% 하락(Bloomberg('24.10.))

- 인도네시아 수출 2위 품목인 팜유(HS 1511)는 주요 재배지역에 강우량 부족과 팜유 나무 노화로 작황이 부진하여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

- 반면 수입 1위 품목인 정제유(HS 2710)와 2위 원유(HS 2709) 수입액은 각각 14%, 2% 증가. 인니 자체 생산량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며 수입 증가 추세

- 2023년 극심한 가뭄으로 파종이 늦어지면서 2024년 쌀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이에 쌀(HS 1006)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

□ 환율은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며, 물가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2024년 상반기 루피아 환율은 달러 대비 지속적으로 절하되어 역사적인 약세 구간에 진입하기도 하였으나, 8월 이후 안정세를 되찾음

- 2024.4월 16,000루피아/달러를 돌파하고 6월 최고점을 기록하였으나 8월 이후 환율이 하락하여 10월 말에는 15,600루피아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루피아 절하로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속화가 우려되었으나, 상반기 동안 중앙은행이 설정한 인플레이션 목표 구간($2.5\% \pm 1$)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됨

〈2024년 루피아/달러 환율 추이〉



자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2024.11)

- 2024년 상반기에는 식음료 가격 상승과 종교적 행사로 인한 소비 증가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중앙은행은 4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관리

- 연초 쌀을 중심으로 식료품 가격 변동성이 높았으며, 라마단을 전후로 소매 판매율이 증가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되었음

* '24년 물가상승률(%) : (1월) 2.6 → (2월) 2.8 → (3월) 3.0 → (4월) 3.0 → (5월) 2.8 → (6월) 2.5 → (7월) 2.1 → (8월) 2.1

- 이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24.4월 금리를 6.25%로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이 둔화되어 9월 물가상승률은 1.84% 수준으로 감소

다. 산업 환경

□ 인도네시아 산업 개관

- 2023년 인도네시아 GDP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92.6%로 전년 대비 약 6%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정부 부문은 7.4%로 동 기간 감소
 - 2023년 하반기에는 차년도 대선을 앞두고 정부 지출이 증가하였으나, 민간 소비 및 민간 투자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며 정부 지출 비중은 오히려 감소
- * 민간 소비, 비영리기관 소비, 민간 투자, 자본 변동, 순수출 및 오차항의 합
- 매년 제조업, 도소매, 농림어업, 건설업 비중의 합이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2024.2분기 기준, 제조업이 18.9%로 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소매(13.1%), 농림어업(12.7%), 건설업(9.9%), 광업(9.1%) 순으로 이어짐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별 GDP 비중〉

(단위: %)

산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2Q
농림어업	13.7	13.3	12.4	12.5	12.7
광업	6.4	9.0	12.2	10.5	9.1
제조업	19.9	19.2	18.3	18.7	18.9
건설업	10.7	10.4	9.8	9.9	9.9
도소매	12.9	13.0	12.9	12.9	13.1
운송 및 창고	4.5	4.2	5.0	5.9	6.1
정보통신	4.5	4.4	4.2	4.2	4.4
금융 서비스	4.5	4.3	4.1	4.2	4.3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2024.9)

□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 동향 및 성장 전망 (기초금속)

- 기초금속 산업 동향 및 전망
 - 2023년 기준 기초금속 산업은 전체 제조업의 5%를 차지하여 식음료(35%) 및 타 분야*에 이어 7위를 차지
- * 석탄, 석유 및 가스(10.3%), 화학, 제약 및 전통 의학(9.4%), 금속 제품, 전자, 광학 및 전기 장비(8.4%), 운송(8.0%), 섬유(5.3%)
- 다만 기초금속 산업은 2021년부터 매년 10% 이상의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 2024년 상반기 17.3%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체 제조업 성장률이 같은 기간 4%임을 고려할 때 빠른 성장세임

- 이러한 성장세는 코로나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된 광물 수출 금지 정책의 효과로 분석되며, 2021년을 기점으로 기초금속 산업 성장률과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구리, 철, 납, 아연 정광에 대한 수출 금지를 예고한 바 있어, 이러한 정책에 따라 기초금속 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기초금속 산업 성장 추이〉

(단위: %, 외국인 투자(억 달러), 내국인 투자(억 달러))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9(누적)
GDP 비중	0.8	0.8	0.8	0.9	1.0
성장률	5.9	11.5	14.8	14.2	17.3
외국인 투자	59	69	109	118	102
내국인 투자	5.6	9.9	8.8	16	16

주: GDP 비중 및 성장률은 2024년 상반기 기준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2024.8), 인도네시아 투자부(2024.11)

• 정부 중점 정책 및 기타 이슈

- 2024.7월 인니 정부는 정부 기관 간의 광물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합 애플리케이션 SIMABARA를 출시. 이를 통해 거버넌스 개선, 데이터 상호운용성 보장, 채굴 진행 상황 추적을 목표로 하며, 정부 관계자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됨
- 2025년 예산안 초안에서 다운스트림 예산이 축소되면서 총예산이 2024년 39.5조 루피아(25억 달러)에서 27.4조 루피아(17억 달러)로 감소함. 정부는 다운스트림 프로젝트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할 계획

□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 동향 및 성장 전망 (화학·제약)

• 화학 산업 동향 및 전망

- 인도네시아 화학 산업은 나프타 분해시설 등 주요 설비 및 인프라 부족으로 70% 이상 수입에 의존
- 수입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해 인니 정부는 자금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세제 혜택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현지 생산을 장려하며, 관련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추진 중임
- LX인터내셔널은 2022.8월 인도네시아 최대 석유화학 기업 찬드라 아스리와 수소화 식물성 오일(HVO, 친환경 차량·항공용 연료) 현지 생산 협력 추진
- 롯데케미칼도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조성을 위해 39억 달러 투자를 단행(라인 프로젝트)하였으며, 2025.3월 에틸렌, 프로필렌, 폴리프로필렌 상업 생산 예정. 생산량의 70%로 인도네시아 수요를 충족하고, 30%는 수출할 것으로 예상됨

• 제약 산업 동향 및 전망

-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주요 분야로 제조업에서 식음료에 이어 가장 큰 비중(11%) 차지
- 인구 및 소득 증가, 건강보험 시행, 보건법 개정 등의 기초가 개선되고 있어 제약 산업은 2025년까지 연평균 5.5% 성장하며 시장 규모는 37억 달러로 전망
- 의약품 원료 90% 수입 의존, 다만 2022년부터 TKDN(국산 부품 사용 요건) 규제 강화, 2026년부터 의약품 할랄 인증 의무화로 수입 비중은 감소할 전망

• 정부 중점 정책 및 이슈

- 인도네시아 산업부와 보건부는 장기적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료의약품·화공약품과 같은 품목들의 현지 생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 중
- (의약) 2020년부터 수입품은 TKDN 충족이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하였으며*, 2026년부터 의약품 할랄 인증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임. 할랄 인증을 받지 못한 비할랄(Non-Halal) 수입 제품에 대한 차별적 요소로 적용될 것으로 보임
 - * 의약품 TKDN(국산 부품 사용 요건) 계산법이 비용에서 가공 기반으로 변경
- (화학) 천연자원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탈피, 부가가치를 높인 석유화학제품 수출에 중점, 2025년까지 파푸아 빈투만 가스, 북부 수마트라 세일 가스 등 업스트림 석유화학 플랜트 확장 구축 프로젝트 시행

〈2021~2030년 인도네시아 화학 분야 개발 로드맵〉

구분	1차(3~5년) 개발	2차(5~10년)	3차(10~15년)
달성연도	2021	2025	2030
목표	기초 화학제품 수입 대체 30% 이상	합성화학산업 육성, 제품 판매 확대 등	세계 5대 바이오연료 생산회사 육성
주요 내용	수입 대체를 통한 기초 화학물질 수입 감소 나프타, 올레핀, 아로마핀 등 기초화학물질 생산 확대 섬유산업 지원을 위한 합성섬유 생산 확대	중간화학제품 생산 확대 합성섬유 생산 확대 기초 바이오화학 산업 육성	바이오화학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 국내 수요와 수출 수요 최적 조정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특별한 역량을 가진 화학 기업 육성
주요 품목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합성섬유, 합성레진, 합성고무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연료, 바이오 원료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 동향 및 성장 전망 (섬유)

• 섬유 산업 동향 및 전망

- 섬유·봉제 산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인니는 세계 10대 섬유 봉제 산업국임. 섬유 산업은 인니 노동시장을 견인하는 주요 산업으로 분류됨
- 섬유 산업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을 구성하는 7대 산업 중 하나로, 궁극적으로 신규 설비와 고급 기술을 도입하여 고부가가치 섬유를 생산하는 것
- 그러나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은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 2023년 섬유 산업 성장률은 -1.98%로, 제조업 전체 성장률 18.7%와 비교해 저조함. 인도네시아 섬유생산지수(2010=100) 또한 산업 축소 가능성을 시사함

〈인도네시아 섬유생산지수 동향〉

2019	2020	2021	2022	2023
74.98	62.97	69.5	65.26	58.72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20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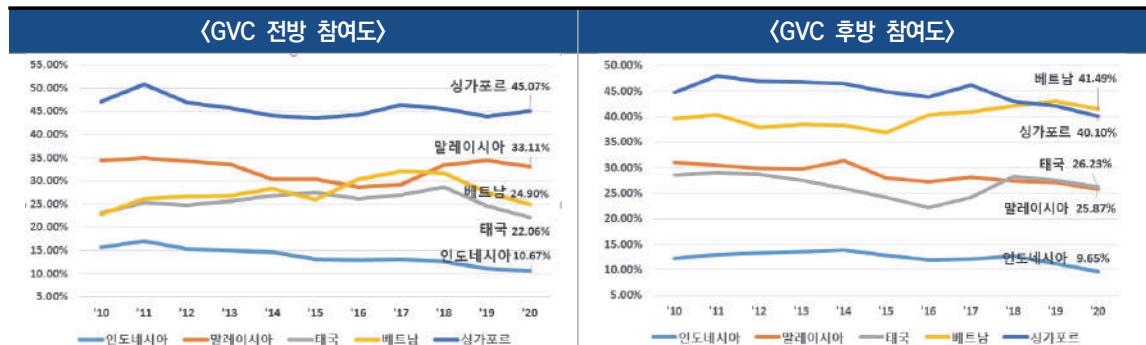
- 섬유 산업 위축의 요인은 다양하지만, 언론에서는 ▲규제 완화 ▲글로벌 수요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음
- 2024년 무역부 규정 제8호 시행으로, 인니에 섬유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던 기술적 고려사항(Pertek) 발급이 면제되어 저가 섬유 제품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거 유입됨
- 인도네시아 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섬유 산업 위축으로 섬유 산업 종사자가 2023년 398만 명에서 2024.8월 387만 명으로 감소. 인니 섬유협회(API)는 2024.1~5월 동안 20~30개의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고 밝힘
- 결국 인니 정부는 2024.8월 자국 섬유 산업 보호를 위해 HS 코드 기준 107개 항목에 대하여 한국 포함 124개국 대상으로 수입 섬유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
- 2024년 섬유 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 주도의 기술적 발전이 향후 산업 회복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라. 정책·규제 환경

□ GVC 재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망 제조업 육성 정책 지속 추진

- 자원(원자재) 수출이나 단순 조립 중심 산업구조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의 후방 참여도는 타 아세안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

〈아세안 주요국 역내 GVC 전후방 참여도 비교 (2010~2020년)〉



자료: ADB MRIO(2021.6),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데이터 가공

- 인도네시아 수입에서 최종 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 원부자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총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함

〈인도네시아 품목별 수입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0	2021	2022	2023
소비재	14,656	20,183	19,832	21,546
가공 원부자재	103,210	147,380	181,337	161,155
자본재	23,703	28,627	36,355	39,183
총합	141,569	196,190	237,524	221,886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 자국의 유망 제조 산업의 혁신을 통해 가공 원부자재 수입 비중을 낮추고 수출 비중을 확대하여 후방 GVC 재편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정책 추진 중

① 원자재 다운스트림 역량 강화

- (개발 방향) 단순 자원 수출 구조에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다운스트림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
 - 풍부한 광물을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까지 도모하고 있음

• (광물 개발 세부) 광물 수출 금지 정책을 시행하여 자국 내 제련소 건설 유도, 부가가치가 높은 중간재를 생산하여 수출하고자 함

- 2009년 법령(정부령 4호)을 통해 원자재 형태 광물 수출 금지가 2014년부터 시행 중
- 해당 법령을 통해 자국 내에서 광산 제품 가공 및 정제 의무화
- 2017년 일부 광물 원자재가 수출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지만 5년 이내 해당 광물 제련소를 건설해야 하는 조건이 붙음(조건 미이행 시 광물 수출 허가 취소)
- 니켈과 보크사이트는 원자재 형태 수출을 금지*하면서 국내외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 현지 제련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해짐

* 니켈('20년부 수출 금지), 보크사이트('23.6월부 수출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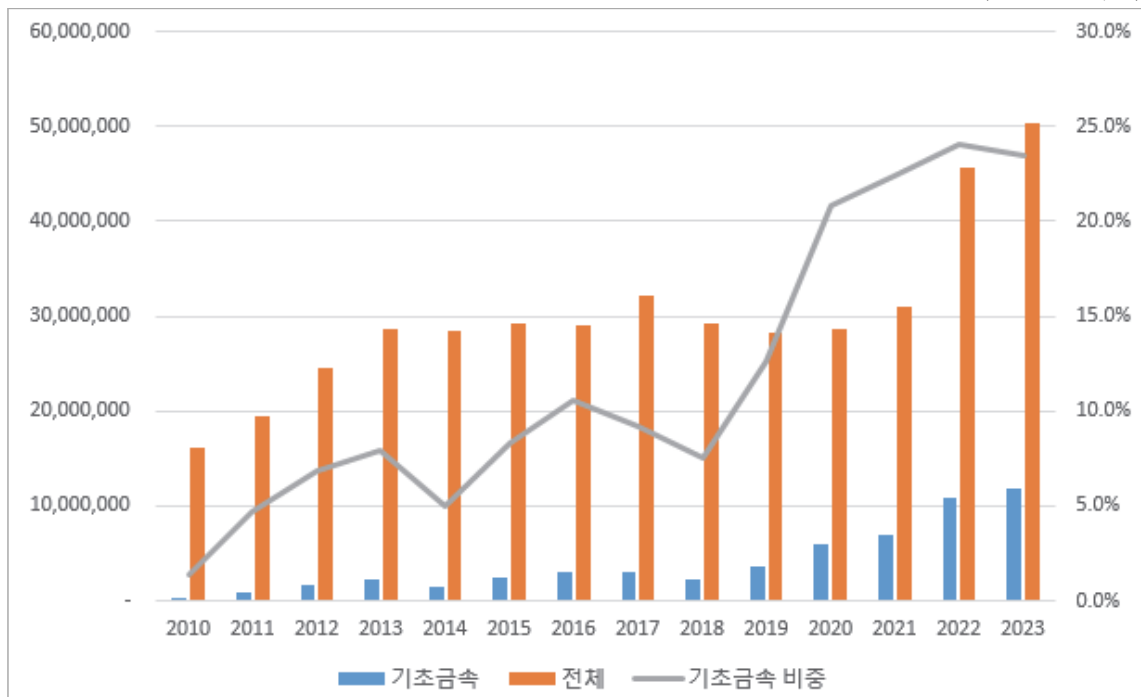
- 구리, 철, 납, 아연 등 정광에 대해 수출 금지 정책을 예고하였으나, 제련소 설비 부족으로 인해 해당 정책을 2024.12월까지 유예함. 다만 제련소 건설 진행 단계에 따라 수출세(2.5~10%)를 적용

• (정책 성과)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가 및 수출액 증가

- 2023년 FDI 금액은 502억 달러로, 2020년 대비 75% 증가. 특히 기초금속 분야 FDI는 2023년 118억 달러로, 2020년 대비 97% 증가. 또한 전체 FDI에서 기초금속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이후 20%를 넘어서고 있음

〈인도네시아 FDI 추이〉

(단위: 천 달러, %)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2024.7)

- 원자재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중간재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수출액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인도네시아 주요 광물 수출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품목(HS코드)	2020	2021	2022	2023	2024.6(누적)
철과 강철(72)	10,862	20,925	27,823	26,705	12,560
철과 강철 부속(73)	1,191	1,604	1,758	1,703	1,748
구리 및 제품(74)	1,895	3,049	2,794	2,290	1,734
니켈 및 제품(75)	808	1,284	5,940	6,815	3,450
주석 및 제품(80)	1,130	2,441	2,388	1,784	454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2024.9)

• (석탄 개발 세부) 2030년까지 석탄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 중 하나로 풍부한 매장량 보유*
* 중국, 인도, 미국, 호주 등에 이은 5위 규모(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석탄(지하석탄 포함) 가스화, 코크스 제조, 석탄 액화, 석탄 품질 개선, 연탄 제조, 석탄수 혼합 등 최소 7가지 석탄 다운스트림 개발 중
- 2030년까지 총 3,760만 톤(공급원료/투입량)의 생산능력 확보 목표

• (팜오일 개발 세부) 단순 팜오일 원유 수출에서 팜오일 산업 중심으로 개발

-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오일 생산국이자 수출국
- 그러나 팜유 대부분은 여전히 원유(Crude Palm Oil) 형태로 수출되고 있어 환류되는 부가가치가 낮은 편
-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45년까지 인도네시아를 세계 팜유 파생상품 중심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다운스트림 산업 개발을 적극 추진 중

〈팜오일 품목별 개발 분야〉

올레오폭품(Oleofood)	올레오케미칼(Oleochemical)	바이오연료(Biofuel)
팜오일을 활용한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한 중간재 개발 (팜유, 비타민 A, 마가린, 아이스크림, 코코아, 쇼트닝 등)	올레오케미칼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한 중간재 개발 (바이오 계면활성제, 윤활제, 기타 소재 등)	바이오연료 최종재를 얻기 위한 중간재 개발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등)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 인니 정부는 2030년까지 녹색 연료 생산량을 올해 대비 65% 증가한 1,400만 킬로리터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는 2025년까지 팜유 비율을 40%로 높인 바이오디젤 B40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현재 사용 중인 B35 바이오디젤을 대체할 전망
- B40 도입으로 인해 바이오디젤에 사용되는 팜유는 연간 1,100만 톤에서 1,4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프라보워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B50 도입과 관련해 에너지광물자원부는 바이오디젤 B50의 상용화를 위한 차량 도로 테스트를 시행할 예정

②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지속 개발

- 중점 제조업 분야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 10대 산업국 진입을 목표로 함
 - 코로나19를 겪으며 의료기기와 제약 분야를 추가해 7대 중점 분야로 확대됨
-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을 통해 2030년까지 ▲실질GDP 성장률 제고(6~7%) ▲일자리 창출(1,000만 개) ▲제조업의 GDP 기여도 증가(20% 이상)를 목표로 함
- 주요 분야별 개발을 위해 국영기업 및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추진
 - 주력 산업별로 국영기업을 포함하는 지주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주요 산업 및 참가 국영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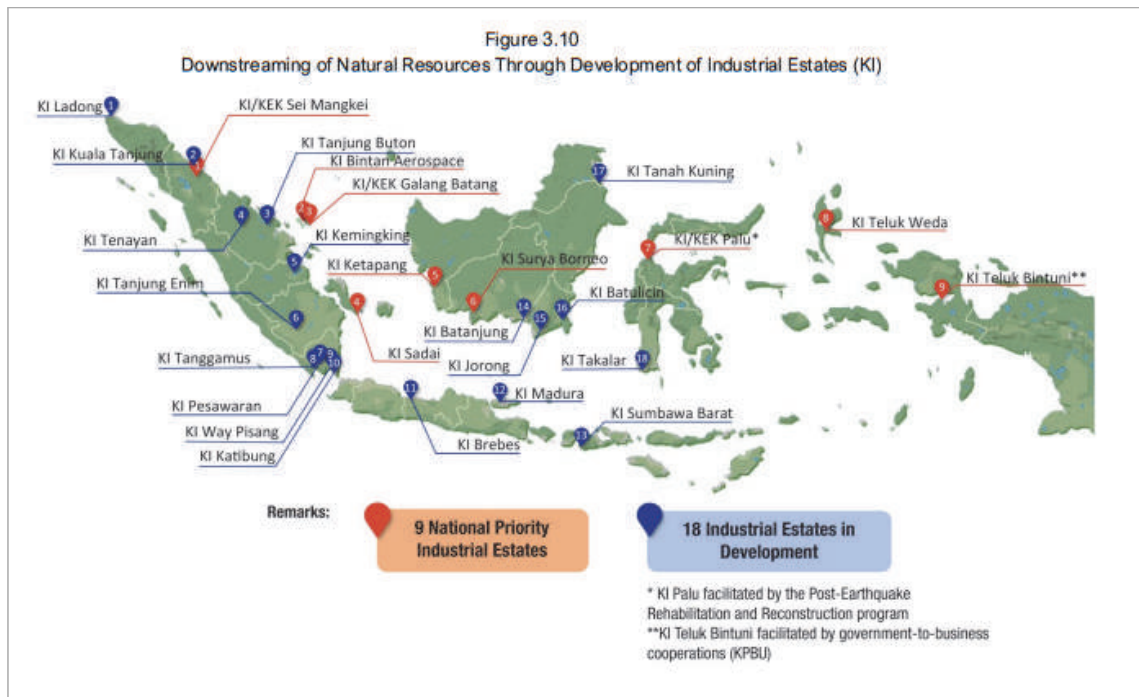
분야	핵심 국영기업	추진 배경	세부 계획
식음료	PT. Rajawali Nusantara Inda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수입의존도 - 수출 대비 수입액이 2배를 넘음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계측·모니터링, 오토 파일럿 드론 등의 기술을 활용한 업스트림 생산성 향상(원료 자국 내 해결) • 지역별 수출 허브 활성화
섬유 및 봉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파른 임금 상승, 노후화된 설비로 인한 낮은 생산성 • 높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스트림 생산능력 및 품질 향상 • 기술 도입을 통한 고부가가치 섬유 생산 • 기능성 의류에 대한 내수 및 해외 수요 맞는 생산능력 증대
자동차 (전기차)	PT. PLN(에너지) PT. Inalum(광물) PT. Aneka Tambang(광물) PT. Pertamina(석유) PT. Indonesia Asahan Aluminium(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차 기업의 높은 지배력 탈피 • 공해 문제 해결과 에너지 안보 • 전기자동차 산업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규모 확대를 통한 원자재 및 핵심 부품 자급자족 • 기술 도입 및 물류 플랫폼과 같은 인프라 지원을 통해 GVC 진입 • 수출형 차종(저비용 그린카, SUV) 등의 현지 위탁생산 유도 • 전기자동차 생태계 조성
화학	PT. Biofar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대한 내수시장 규모에 비해 높은 수입 의존도 • 내수 수요 충족이 불가한 자국 기업의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 가스전 근접 지역에 석유화학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높은 가격경쟁력 달성 • R&D를 통한 생산성 향상 • 바이오연료, 플라스틱 등 차세대 화학제품 생산능력 개발
전자	PT. Telkom Indonesia PT. Pertamin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필수 전자제품 생산 자국 기업 부족 • 선진국과의 큰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글로벌 제조 기업과의 협업 • 단순 조립이 아닌 고부가가치 전자 부품 생산능력 배양 • 기술 도입 및 이전을 통한 내수 역량 확보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기술연구개발기구(BPPI),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Perpres No.18/2020

③ 산업단지 인프라 개발

- 국가 중점 육성 분야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위해 해당 산업과 연계된 인근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 산업단지 투자 시 유·무형적 인센티브 제공 예정
 - 개발 중인 프로젝트와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 전력 효율 극대화 추진
 - 2023년 기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145개의 산업지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최소 18개 지역을 추가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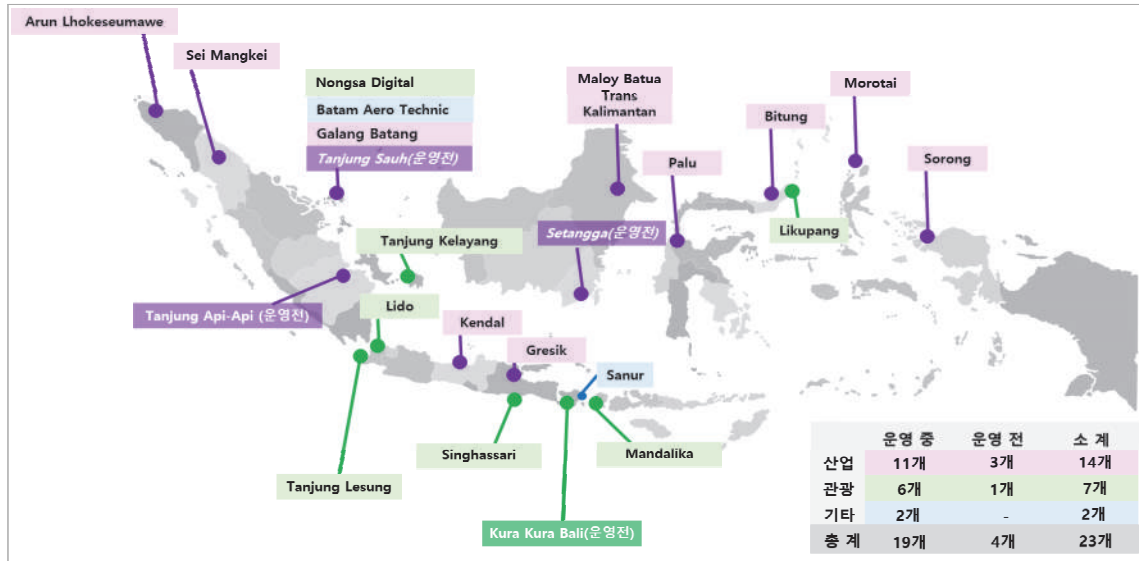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산업단지 개발 계획〉



자료: 인도네시아 중기개발계획(RPJMN 2020-2024)

- 특별경제구역 확대
 - 수출가공, 물류, 공업, 기술 개발, 관광, 에너지 등 목적별로 지정된 경제특별구역 확대 추진
 - 2024.8월 기준, 19개 지역이 특별경제구역으로 운영 중이며, 지정된 지역 수는 총 23개임

〈인도네시아 특별경제구역(SEZ) 현황〉



자료: 인도네시아 SEZ 홈페이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정리

□ 탄소 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① 탄소 중립을 위한 국가 정책

- 인도네시아 국가온실가스 로드맵(NDC) 개정안 발표(2021.10)
 - 자체 감축(1안)과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감축(2안)으로 목표 세분화

〈인도네시아 온실가스(이산화탄소) 감축 로드맵(N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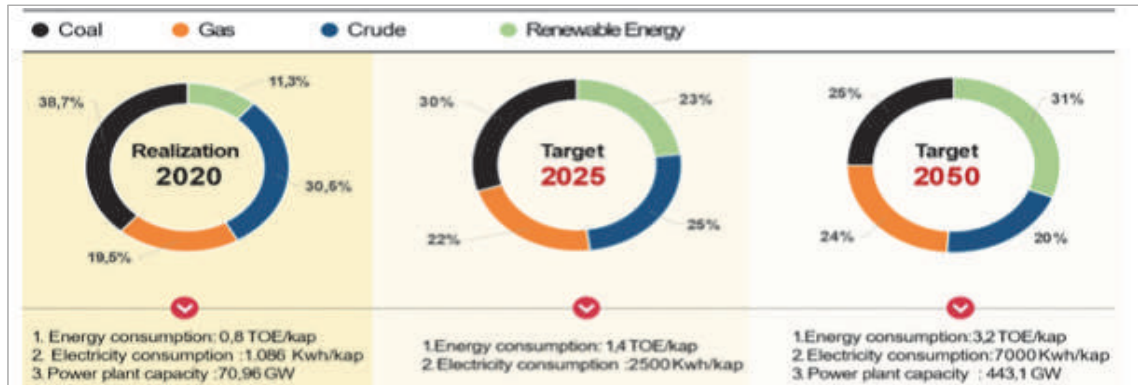
온실가스 감축 목표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주요 내용
2030	① BAU 대비 29.0% (29 bil ton CO ₂ eq → 20 bil ton CO ₂ eq)	• 온실가스 BAU는 2,869.0백만 톤 • (조건 없이) BAU 대비 29.0%인 834백만 톤 감소 추진 • (조건부) BAU 대비 41.20%인 1,185.3백만 톤 감소 추진
	② BAU 대비 41.2% (29 bil ton CO ₂ eq → 17 bil ton CO ₂ eq)	

자료: Updat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Republic of Indonesia(2021.10)

- NDC 달성을 위한 탄소 중립 목표의 첫 장기저탄소전략(LEDs) 수립
 - 2060년까지 국내외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탄소 중립 추진
 -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현행 유지, 일부 감축, 파리협약 목표 준수)를 가정하여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저탄소 기술 개발, 태양광 패널 및 전기차 부품 등 신산업 부품의 국산화 등이 포함됨

- 2017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에너지 일반계획(REUN)을 수립하여 2050년까지의 에너지 믹스 목표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
 - 국가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까지 23%, 2050년까지 31%로 각각 확대할 계획
 - 다만 2023년 기준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믹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로 목표치인 17.9%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에너지위원회는 향후 재생에너지 목표 비율 조정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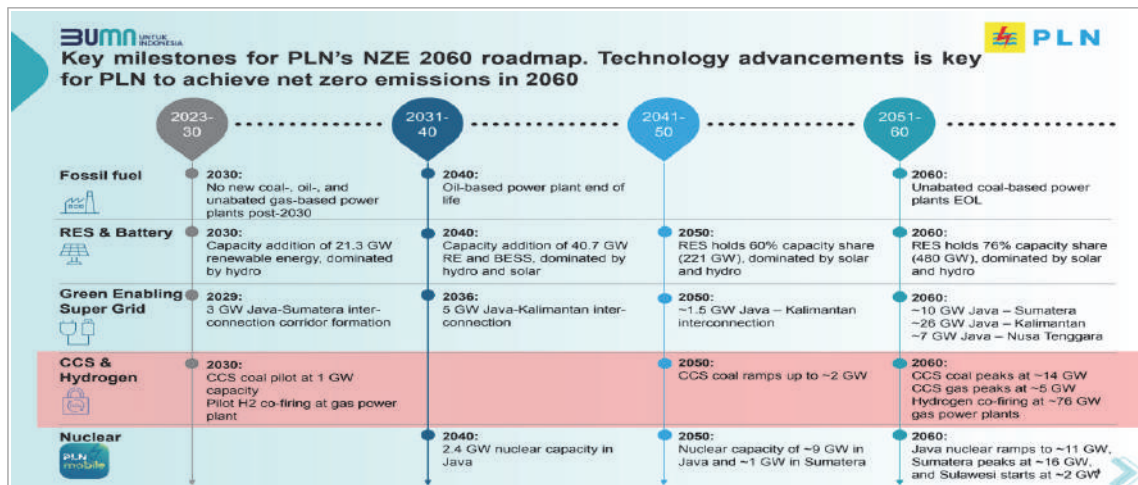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에너지 믹스 계획〉



자료: Peraturan Pemerintah Nomor 79, Tahun 2014

- 인도네시아 전력공사(PLN)는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계획을 발표. 해당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는 주로 수력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이후에는 태양광 및 수력 발전 비중을 확대할 예정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탄소 중립 로드맵〉



자료: Petromindo

- 이와 더불어 PLN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일부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취소

② 탄소 관리와 기술 혁신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4월부터 석탄 화력발전소에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규정을 정비 중임.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탄소세 도입 시 규정뿐만 아니라 산업 준비 상황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2023.9월 자국 탄소거래소인 IDX Carbon을 출범시켜 본격적으로 탄소 거래 시작
 - ‘금융 부문의 발전과 강화에 관한 법률(UUP2SK)’에 따라 탄소 단위는 유가증권(Securities, Efek)으로 구분되며, 탄소 단위는 다시 PTBAE-PU와 SPE-GRK로 나뉨(세부 내용은 KOTRA ‘해외시장뉴스’ 참고)
 - * Efek : 소유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를 부여하는 실물 및 디지털 형태나 다른 형태의 증권 또는 투자 계약

〈인도네시아 탄소거래소 내 탄소 단위 구분〉

구분	내용	비고
PTBAE-PU (Petunjuk Teknis Batas Atas Emisi Pelaku Usaha)	정부가 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 결정 및/또는 각 사업체에 대한 특정 준수 기간 내 배출 할당량 결정	동일 분야 국내 수준에서 타 PTBAE-PU 보유자와만 거래 가능
SPE-GRK(Sertifikat Pengurangan Emisi Gas Rumah Kaca)	측정, 보고 및 검증을 거친 비즈니스 및/또는 활동에 의한 배출량 감축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등록번호 및/또는 코드 형태로 SRN PPI에 기록	분야 간 거래이며, 해외에서도 거래 가능

자료: 인도네시아 탄소거래소(IDX Carbon)

- 인도네시아 탄소 거래는 IDX Carbon 내에서 정규시장, 협상시장, 경매, 마켓플레이스 등 네 가지 시장에서 거래 가능

〈인도네시아 탄소 거래 시장 종류〉

종류	내용
정규시장 (Pasar Reguler)	판매자와 구매자가 실시간으로 매매 관심을 표현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연속 경매 메커니즘의 시장
협상시장 (Pasar Negosiasi)	이전에 합의된 거래가 투명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IDXCarbon 시스템을 통해 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장
경매 (Pasar Lelang)	정부 또는 배출 감축 프로젝트 소유자가 탄소 거래 운영사의 경매 메커니즘을 통해 탄소 단위를 판매할 수 있는 시장
마켓플레이스 (Marketplace)	배출량 감축 프로젝트 소유자가 미리 정해진 가격에 탄소 단위를 판매할 수 있는 시장

자료: 인도네시아 탄소거래소(IDX Carbon)

- 인도네시아 탄소 거래를 통해 경제적 가치 창출과 탄소 배출 제로 달성에 기여함. 2024.6월까지 거래된 탄소의 경제적 가치는 약 226만 달러에 달하며, 이는 약 60만 8천 톤의 이산화탄소에 해당

-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한 탄소 거래 프레임워크 개발 중
 - 개발 중인 탄소 거래 시스템은 배출권 거래제(ETS)를 활용할 예정이며, 산업부는 배출 보고를 감독할 검증 기관을 포함한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음
 - 산업 부문에 대한 배출 상한선이 도입될 예정이나, 모든 산업별 배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임
- 탈탄소화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활용 지원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자료에 따르면 15개의 CCS 프로젝트가 있으며 모두 타당성조사 진행 중, 그 규모는 80억 달러로 추정됨
 - 인니 정부는 CCS 관련하여 2024년 대통령령 14호를 발표, CCS에 대한 용어 정의, 사업 활동, 허가 메커니즘을 포괄적으로 규정
 - 이에 따르면 CCS 운영자들은 저장 용량의 최대 30%를 외국 업체와 계약할 수 있으며, 이는 외국에서 발생한 탄소를 인도네시아로 이동해 저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

③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국제 협력

- 인도네시아는 2022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JETP(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에 공식 가입,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해 국제 협력 강화
 - 미국과 일본이 포함된 G7 국가 및 덴마크, 노르웨이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이행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 목적 기금인 JETP를 발족
 - 향후 3~5년 동안 공공·민간으로부터 200억 달러의 투자금을 모금하기로 함
 - 인니 정부는 이행 계획으로서 종합 투자 정책 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4%까지 확대하기로 함
 - 인도네시아가 탄소 중립 목표를 10년 이른 2050년까지 달성하도록 원조

□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 인도네시아 정부는 디지털 정부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정부 시행을 위한 통합적 체계 구축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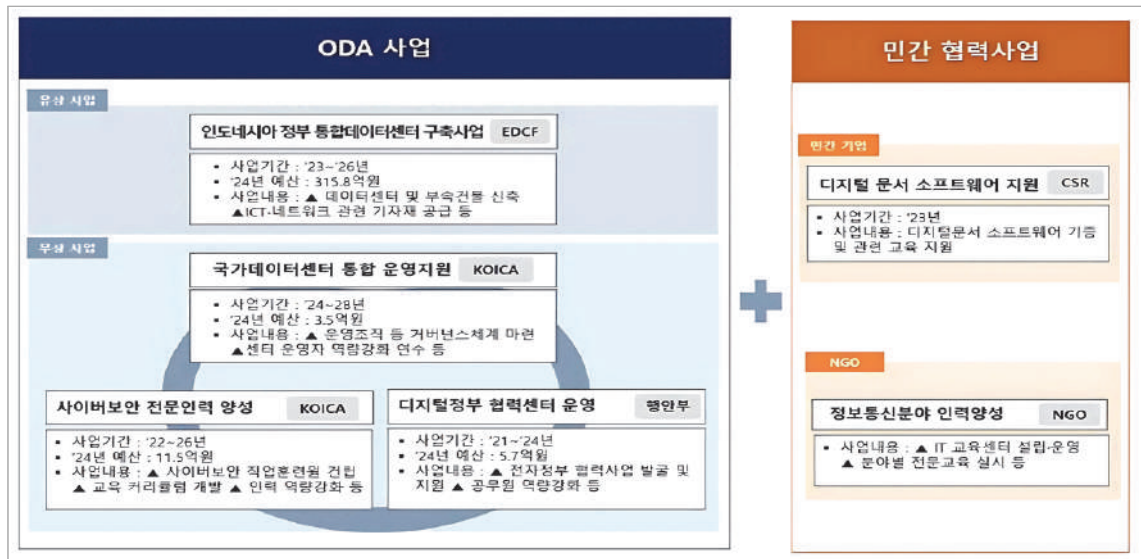
〈디지털 정부 관련 주요 정책〉

정책명	설명
전자정부 시스템(SPBE) 마스터플랜	전자정부 시스템의 구현을 의무화하는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고, 2018~2025 마스터플랜을 통해 기관 및 지방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며, SPBE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제시
One Data 이니셔티브	국가 데이터를 정확하고(accurate) 통합적이며(integrated) 신뢰성(accountable) 있게 만들어 정부 및 지역 기관 간에 쉽게 접근하고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계획
INA Digital 플랫폼	인니 정부가 개발 중인 Govtech 플랫폼으로,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다양한 부처 및 기관의 디지털 서비스를 하나의 포털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함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체 정리

- 인도네시아 정부는 One Data 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해 4개의 국가 데이터 센터(Pusat Data Nasional, PDN)를 구축하고 있으며, 짜카랑 소재 데이터 센터는 2025년 운용 예정
 - 인도네시아는 PDNS1과 PDNS2라고 불리는 임시 데이터 센터를 자카르타와 수라바야에서 운용 중이며, 임시 데이터 센터는 완전한 국가 데이터 센터가 완공될 때까지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정부가 추진하는 4개의 국가 데이터 센터는 짜카랑(Cikarang), 바탐(Batam), 신수도 예정지(Nusantara), 그리고 라부안 바조(Labuan Bajo)에 위치할 예정
 - 짜카랑 PDN은 프랑스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아 가장 빠르게 건설이 진행 중으로 2024.10월 기준 90% 완성하였으며, 2025년 정상 운영을 목표로 함
 - 인도네시아와 한국 정부는 PDN 건설을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2,100억 원 규모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을 통해 바탐 정부 통합 데이터 센터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패키지〉



자료: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인도네시아 지불 결제 시스템 청사진 2025(Indonesia Payment System Blueprint 2025)**
 - 2019.5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결제 시스템 2025 비전 선포
 - ①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표준화를 통한 디지털 오픈 बैं킹 구축, ②소매 결제 시스템 개발, ③도매 결제 및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④데이터 통합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국가 데이터 개발, ⑤결제 관련 규제, 관리 감독, 인허가 및 보고 체계 구축 비전으로 구성

□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수입 규제, 인증제도 및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 **인니 정부는 품목별로 수입 쿼터적인 사전 수입 승인(Persetujuan Impor, 이하 PI), 선적 전 검사(Laporan Surveyor, 이하 LS), 기술적 고려사항(Pertimbangan Teknis, 이하 Pertek)의 적용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수입 규제 시행**
 - 2023년 무역부 규정 제36호를 통해 18개 품목군, HS 코드 기준 2,428개 품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바 있음
 - 하지만 컨테이너 통관이 지연되는 등의 이슈가 지속되자 2024.5월 3차 개정안인 2024년 무역부 규정 제8호를 발표하며 수입 규제 일부 완화(세부 내용은 KOTRA '해외시장뉴스' 참고)
- **주요 비관세 장벽으로 언급되는 분야는 유통 허가과 관련한 인증이며, 대표적으로 식약청(BPOM) 인증, 기술표준(SNI) 인증, 할랄(Halal) 인증이 있음**
- **상기 인증 중 BPOM과 SNI 인증은 법적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필수 유통 인증으로, 공통적으로 발급 절차가 까다롭고 요구 서류가 많아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 **2024.10월부터 식음료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 계도기간 종료**
 - 정부 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7일부 정부 차원의 할랄 인증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 할랄보장청(BPJPH)의 할랄 인증 유무 여부를 제품에 부착해야 수입 및 유통 가능
 - * 2024.10.17(식품 및 음료 계도기간 종료), 2026.10.17(의약품, 화장품 등 계도기간 종료)
 - 다만 인니 정부는 2024.10월 현지 소기업 및 영세기업,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된 식음료의 경우 최대 2년 할랄 인증 의무 유예를 발표
- **수입 대체를 목표로 국산 부품 사용 요건(TKDN)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 모든 산업의 평균 국산 사용 비중을 40%대로 만들기 위한 목표를 수립
 - 특히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중점 산업 분야 국산 부품 사용 요건 확대 추진

〈인도네시아의 주요 분야 원자재 수입 비중 조정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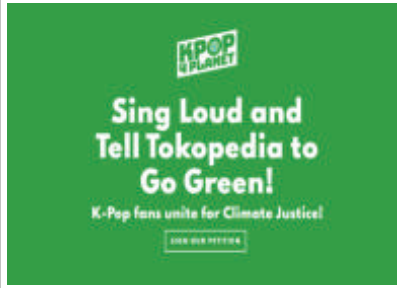
(단위: %)

분야	2020	2021	2022	2023	2024
금속	11.36	10.92	10.44	9.92	9.36
식음료	0.43	0.43	0.43	0.42	0.41
섬유	4.27	4.20	4.13	4.04	3.94
화학, 의약	2.07	2.06	2.04	2.02	1.99
석유 관련	13.06	12.76	12.42	12.04	11.62

자료: 인도네시아 산업부

- (ESG) 대부분의 산업에서 ESG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법으로 명시한 인도네시아, 친환경·탄소 중립 기조 확대
 - 인도네시아는 2007년 유한회사에 관한 법률 제40호로 기업의 CSR 활동 의무화
 - 조코위 대통령은 2021.4월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탄소 중립 의지를 표방
-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ESG 준수 요구
 - 현지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토코피디아(Tokopedia) 대상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발송하는 등 소비자들이 기업들에게 ESG 활동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토코피디아 대상 ESG 요청 운동 개요〉



- 주체: Kpop4Planet(전 세계 K팝 팬들이 모여 결성)
- 요청내용: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
 - 신재생에너지 100% 사용
 - 파리 기후변화협정 등 국제 기준 준수
 - 회사 운영 중 발생한 탄소발자국을 대중에게 공개
- 특이사항: 토코피디아의 홍보 모델이 K팝 대표주자인 BTS와 블랙핑크이기 때문에 토코피디아를 선택

자료: <https://tokopedia4bumi.kpop4planet.com/>

- 인도네시아 기업들의 ESG 경영 적극 실천 중
 - 인도네시아 최대 국영 석유사인 페르타미나(Pertamina)는 ESG 실천을 위해 2025까지 모든 공용차를 전기차로 전환 예정
 - Goto 그룹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쓰레기 배출 제로, 사회적 장벽 제로 등 세 가지 분야에서 ESG를 실현할 계획 추진

• 인도네시아 자본시장도 ESG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

-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2019.4월 UN 주도 '지속 가능 증권거래소 이니셔티브(Sustainable Stock Exchange)' 가입
- 기업별로 ESG 위험도를 평가하여 점수를 매긴 ESG 스코어 제도 시행 중

〈ESG 스코어 기준〉

위험도 스코어	분류	내용
0~10	매우 낮음(Negligible)	매우 낮은 ESG 위험도
10~20	낮음(Low)	낮은 ESG 위험도
20~30	중간(Medium)	중간 수준의 ESG 위험도
30~40	높음(High)	높은 ESG 위험도
>40	심각(Severe)	심각한 ESG 위험도

자료: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

- 2023.9월 기준 IDX 상장기업 중 80개는 ESG 경영 실천을 약속하고 시행 중

〈ESG 경영 실천 주요 기업 목록〉

연번	기업명	사업 분야	ESG 스코어
1	Erajaya Swasembada	소매	12.67
2	Elang Mahkota Teknologi	IT	14.9
3	Bumi Serpong Damai	부동산	15.9
4	Jasa Marga	교통 인프라	15.15
5	Surya Citra Media	미디어	15.35
6	Mitra Pinasthika Mustika	소매	15.9
7	Chandra Asri Petrochemical	석유화학	16.6
8	Media Nusantara Citra	미디어	17.7
9	Global Mediacom	다중 부문	18.14
10	Unilever Indonesia	FMGC	18.8

자료: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

2. 시장 분석

※ ASEAN 최대 성장 잠재력을 지닌 한류 친화 시장으로 다양한 기회와 위협이 공존

- 풍부한 자원과 인력 보유, 한류를 가장 사랑하는 매력적인 시장
- 하지만 정부의 수입 대체 정책과 다양한 규제는 진출 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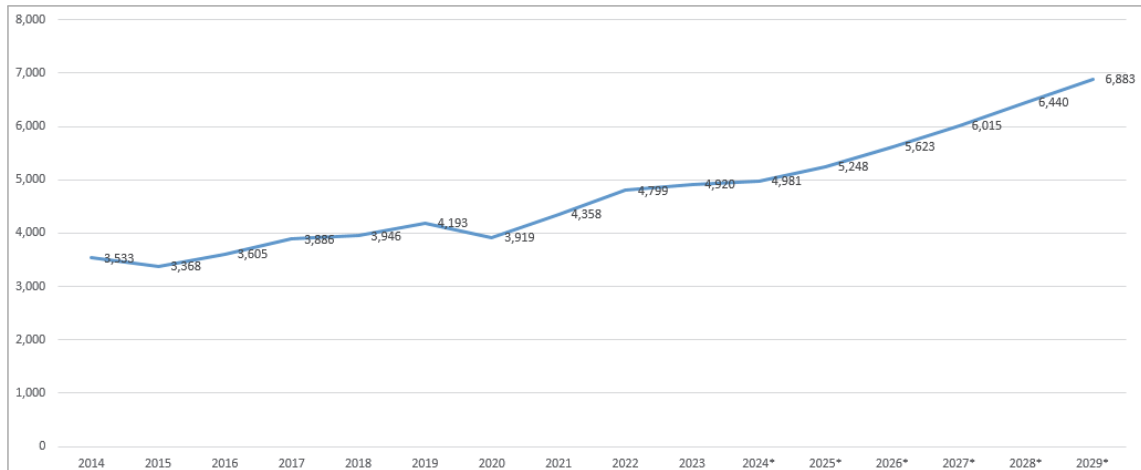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높은 성장 동력을 지닌 동남아 최대 소비시장

-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ASEAN 최대 경제 규모 보유
 - 2023년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는 약 2억 8천여만 명으로 세계 4위 규모, 그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거대 내수시장 보유
 - 2023년 인도네시아 경제 규모는 1조 3,711억 달러로, ASEAN 국가 중 최대
- 2023년 1인당 GDP는 4,920달러이며, 2029년에는 6,883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인도네시아 1인당 GDP 추세 및 전망치〉

(단위: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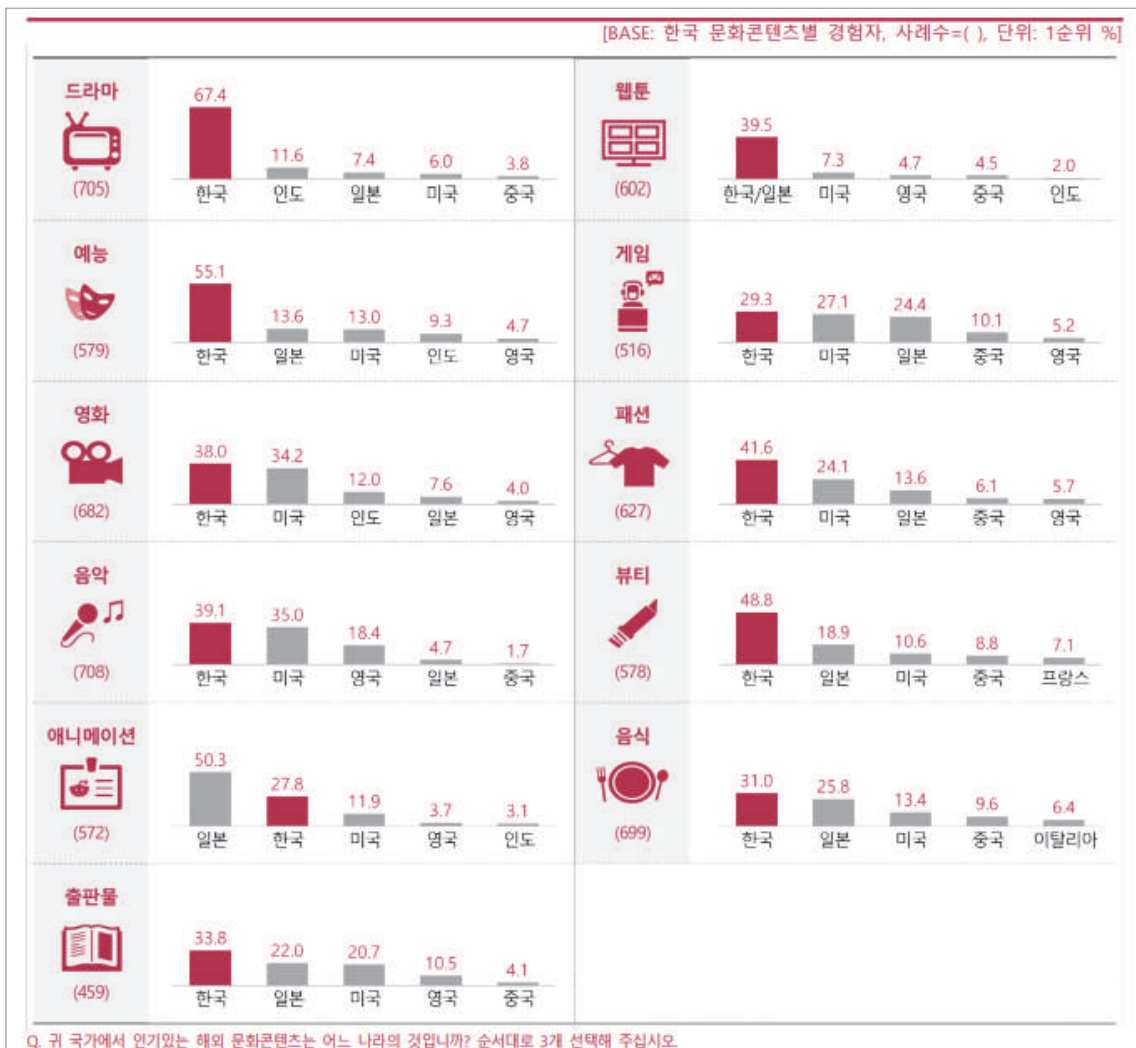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24.10)

□ 한류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시장 중 하나

•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다시금 K콘텐츠가 각광받게 됨

- 코로나로 인해 사회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드라마 시청이 증가했으며,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플랫폼을 통해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증가
- 2024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 인도네시아는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호감 비율이 86.3%로 나타나 조사 대상 26개국 중 1위를 기록하였음
- 2024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화 콘텐츠별 인기 국가는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모든 콘텐츠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 여전히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음

〈문화 콘텐츠별 인기 국가〉



자료: 2024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제13차)

□ 천연자원을 활용해 다운스트림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 자원 부국

• 인도네시아는 니켈, 주석 포함 다양한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된 원자재 부국

- 전 세계 니켈 매장량의 약 42%를 차지하는 5,500만 톤의 니켈이 매장되어 있음(1위)
- 2023년 기준 석탄 매장량은 약 349억 톤으로 세계 6위. 석탄은 2023년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팜유 생산국으로 2023년 연간 약 4,700만 톤의 팜유를 생산. 단순 원유(CPO) 형태의 수출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중간재 생산을 위해 다운스트림 산업 개발을 적극 추진 중
- 2023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산림 면적은 약 92만 1,332km²로 세계 8위에 해당. 인도네시아의 광대한 산림 자원은 생물다양성 보존과 함께 목재 등 산림 제품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중요성을 지님
- 이 외에도 주석·보크사이트·구리 등 광물 자원과, 석유·천연가스과 같은 에너지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음

• 자원을 활용하여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 정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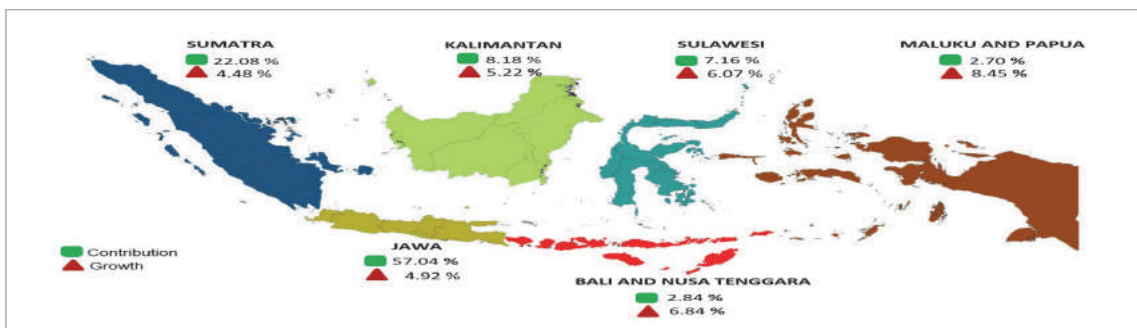
- 특히 광물 수출 금지 정책을 통해 인니 내 제련소 건설을 유도하여 고부가가치인 중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코자 함
- 주요 광물 수출 금지 정책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 유치 중

□ 약 1만 7,5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로,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접근 필요

• 자바섬을 중심으로 한 경제 집중과 지역 간 경제 편차 존재

- 자바섬의 2024년 2분기 GDP가 전체의 57%를 차지하는 등 자바섬을 중심으로 경제가 형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국제 거래는 자카르타 중심으로 이루어짐
- 지역 간 소득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마케팅 필요

〈2024년 2분기 인도네시아 지역별 GDP 성장률 및 GDP 기여도〉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2024.8)

- **국가 간 물류 비용에 더해 인도네시아 섬 간 물류 비용 고려 필요**

- 인도네시아 서쪽 끝부터 동쪽 끝까지의 거리는 약 5,100km에 달하며, 넓게 섬으로 분포되어 있어 인도네시아 내에서의 유통·물류 비용에 대한 이해 필요
- 2014년 조코위 정부 집권 이후 도로, 항만, 발전소 등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국토 연결성이 강화되어 물류 비용이 절감
- 재임 첫 해 99억 달러 투입을 시작으로 2024년 예산안에서는 인프라에 282억 달러로 늘렸으며, 국가개발계획부에 따르면 국가 물류비용이 2018년 GDP의 24%에서 2022년 GDP의 14%로 크게 감소

나. 교역

□ 연도별 인도네시아 수출입 동향

- **2023년 기준, 인도네시아 무역수지는 369억 달러 규모의 흑자 기록**

- 수출은 전년 대비 11%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7% 감소
- 2024.9월 기준, 인도네시아 무역수지는 222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 중

〈인도네시아의 최근 수출입 및 무역수지 규모〉

(단위: 억 달러)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9(누적)
수출	1,632	2,316	2,920	2,588	1,928
수입	1,416	1,962	2,374	2,219	1,708
무역수지	216	354	545	369	222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2024.11)

- **2023년 인도네시아 수출액은 2,588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1% 감소**

- 2023년 인도네시아 수출 상위 5개 품목은 석탄(HS 2701), 팜유(HS 1511), 페로합금(HS 7202), 석유 가스(HS 27411), 구리(HS 2603)이며, 상위 5개 품목은 전체 수출의 35%를 차지
-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석탄과 팜유 수출액이 급감하며 전체 수출금액 감소

* '23년 글로벌 석탄 및 팜유 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26% 하락(Bloomberg('24.1.))

** 석탄(HS 2701) 수출액(억 달러) : ('22) 467 → ('23) 346

*** 팜유(HS 1511) 수출액(억 달러) : ('22) 278 → ('23) 227

- **2024.9월 기준 수출액은 1,92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변화 미미**

- 글로벌 석탄 가격 하락 및 팜유 작황 부진에 따른 영향을 받음

* '24.10월 기준 글로벌 석탄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5% 하락(Bloomberg('24.10.))

* 팜유 생산량 감소로 '24.10월 기준 글로벌 팜유 가격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6% 상승(Bloomberg('24.10.))

〈인도네시아의 對세계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9(누적)	
전체	1,633	(△2.2)	2,315	(41.8)	2,920	(26.1)	2,588	(△11.3)	1,928	(0.3)
연료 에너지	256	(△26.3)	451	(76.4)	710	(57.4)	595	(△16.2)	291	(△11.3)
동식물성 유지	207	(18.1)	328	(58.4)	352	(7.2)	285	(△19.2)	184	(△13.9)
철강	108	(46.4)	209	(93.1)	278	(32.8)	267	(△4.0)	188	(△4.6)
전자기기	92	(10.7)	118	(27.5)	146	(23.6)	143	(△1.4)	110	(△0.7)
자동차·부품	66	(△19.0)	86	(30.8)	110	(27.1)	112	(1.6)	82	(△2.2)

주: HS 코드 2단위 기준, 누적 금액 상위 5개 품목 기재
자료: IHS Markit(2024.11), 인도네시아 통계청(2024.11)

• 2023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3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일본

- 인도네시아 수출에서 중국, 미국, 일본 3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육박하며,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5% 이상 차지

* '19~'23년 인니의 對중국 수출 의존도(%) : 16.7 → 19.5 → 23.2 → 22.6 → 25.1

- 2023년 인도네시아의 對중국 주요 수출 품목은 폐로합금(HS 7202), 갈탄(HS 2702), 석탄(HS 2701)으로, 이 세 품목이 對중국 수출의 46%를 차지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대상국〉

(단위: 억 달러)

순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8(누적)
1위	중국(280)	중국(318)	중국(538)	중국(659)	중국(649)	중국(386)
2위	미국(178)	미국(186)	미국(258)	미국(282)	미국(233)	미국(170)
3위	일본(160)	일본(137)	일본(179)	일본(248)	일본(208)	일본(141)
4위	싱가포르(129)	싱가포르(107)	인도(133)	인도(233)	인도(203)	인도(139)
5위	인도(118)	인도(104)	말레이시아(120)	말레이시아(155)	싱가포르(126)	말레이시아(78)
6위	말레이시아(89)	말레이시아(81)	싱가포르(116)	싱가포르(144)	말레이시아(125)	싱가포르(76)
7위	한국(72)	한국(65)	한국(90)	필리핀(129)	필리핀(110)	한국(73)
8위	필리핀(68)	필리핀(59)	필리핀(86)	한국(128)	한국(103)	필리핀(70)

자료: IHS Markit(2024.11)

• 2023년 인도네시아 수입액은 2,2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7% 감소

- 2023년 인도네시아 수입 상위 5개 품목은 정제유(HS 2710), 원유(HS 2709), 전기통신장비(HS 8517), 전자집적회로(HS 8542), 밀(HS 1001)이며, 상위 5개 품목은 전체 수입의 20%를 차지

- 2023년 정제유 수입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입액이 전년 대비 13% 감소

* '19~'23년 두바이유 평균가(달러/배럴, 석유공사) : 63.53 → 42.29 → 69.41 → 96.41 → 82.10

• 2024.9월 누적 수입액은 1,708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

〈인도네시아의 對세계 수입 추이〉

(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9(누적)
전체	1,704 (△9.3)	1,416 (△16.9)	1,962 (38.5)	2,374 (21.0)	2,219 (△6.6)	1,708 (4.0)
연료 에너지	235 (△25.4)	158 (△32.8)	288 (82.8)	449 (55.7)	401 (△10.6)	311 (6.1)
기계·보일러	268 (△1.1)	218 (△18.5)	258 (18.5)	316 (22.2)	322 (1.9)	247 (4.8)
전자기기	196 (△8.2)	191 (△2.6)	223 (17.1)	264 (18.1)	258 (△2.3)	199 (2.9)
철강	104 (1.7)	69 (△34.0)	120 (74.4)	139 (16.5)	114 (△18.3)	77 (△10)
플라스틱·제품	87 (△5.2)	72 (△17.8)	102 (42.4)	111 (9.2)	102 (7.4)	78 (13)

주: HS 코드 2단위 기준, 누적 금액 상위 5개 품목 기재
자료: IHS Markit(2024.11), 인도네시아 통계청(2024.11)

• 주 수입 대상국은 중국, 싱가포르, 일본, 미국

- 인도네시아의 對세계 수입 중 40% 이상이 중국, 싱가포르, 일본 3개국으로부터 수입되나, 특히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25%를 상회하고 있음
- 對중국 주요 수입 품목은 통신장비(HS 8517), 컴퓨터 및 관련기기(HS 8471), 건설용 중장비(HS 8429), 전선 및 케이블(HS 8544), 합성 필라멘트 직물(HS 5407) 순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 대상국〉

(단위: 억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3	2024.8(누적)
1위	중국(449)	중국(396)	중국(562)	중국(677)	중국(629)	중국(462)
2위	싱가포르(176)	싱가포르(123)	싱가포르(155)	싱가포르(194)	싱가포르(184)	싱가포르(146)
3위	일본(157)	일본(107)	일본(146)	일본(172)	일본(165)	일본(94)
4위	태국(95)	미국(86)	미국(112)	말레이시아(125)	미국(113)	미국(79)
5위	미국(93)	말레이시아(69)	말레이시아(95)	한국(117)	말레이시아(108)	호주(72)
6위	한국(84)	한국(68)	한국(94)	미국(116)	한국(105)	말레이시아(70)
7위	말레이시아(78)	태국(65)	호주(94)	태국(110)	태국(103)	태국(66)

주: 2024년 8월 누적 기준 한국은 8위에 위치함(61)
자료: IHS Markit(2024.11)

□ 인도네시아 수입 규제 제도 및 비관세 장벽

• 인니 정부는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규제 강화

- 인니 무역부는 2023년 규정 제36호를 발표(2023.12.11.)하여 수입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90일의 유예기간 후 2024.3.10.부로 시행
- 특히 사전 수입 승인 대상 품목(화장품, 생활소비재 등)이 확대되면서 인도네시아 내 수입업체가 원하는 만큼 수입 쿼터를 배정받지 못해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수출에 영향을 미침
 - * 사전 수입 승인(PI) : 인도네시아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수입업체가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로, 수입 총량을 관리하는 수입 쿼터 체계의 일부를 구성
- 당시 수입 규제가 시스템이 아닌 공무원의 인적 역량에 좌우되어 업종과 기업의 영향력에 따라 수입 규제의 영향이 차별화
- 2024.5월 컨테이너 통관이 지연되는 등의 이슈가 지속되자 2024년 5월 3차 개정안인 2024년 무역부 규정 제8호를 발표하며 수입 규제 일부 완화(세부 내용은 KOTRA '해외시장뉴스' 참고)

• 틱톡 등 소셜미디어 전자상거래 금지 및 해외 직구 규제 강화

- 2023년 틱톡(TikTok)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판매가 크게 증가하자 인도네시아 소매판매자협회(Aprindo)를 중심으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됨
- 조코위 대통령은 2023.7월 이커머스 등 디지털 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이커머스 경쟁 환경을 점검
-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023.9월 소셜커머스의 온라인 판매와 해외 직구를 규제하는 규정을 시행함. 소셜미디어와 이커머스 플랫폼을 분리하여 틱톡 등 소셜커머스는 생산 및 전자결제가 금지됨
- 이에 2024.2월 틱톡은 8억 4천만 달러에 인니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토크피디아(Tokopedia) 지분 75.01%를 인수
- 또한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100달러 미만의 제품에 대해서는 할랄 인증, 식약청(BPOM) 인증, 기술표준(SNI) 인증 등 필요한 인증 취득이 의무화

• 무역규제 조치 동향(2024.8월 기준)

- 인도네시아 對세계 수입 규제는 총 21건(세이프가드 11건, 반덤핑 10건)
- 주로 철강·금속(6건)과 섬유·의류(5건), 화학(4건), 플라스틱·고무(3건), 기타(2건) 등 내수 생산이 가능하거나 육성 중인 산업 보호에 대한 조치

〈인도네시아 무역구제 조치 현황 (2024.8월)〉

품목	규제유형	반덤핑		세이프가드		계	
		전체	(조사 중)	전체	(조사 중)	전체	(조사 중)
섬유/의류		0	1	5	3	5	4
철강/금속		5	0	1	0	6	0
플라스틱/고무		2	2	1	0	3	2
화학		3	0	1	0	4	0
전기전자		0	0	1	0	1	0
기타		0	1	2	1	2	2
총계		10	4	11	4	21	8

자료: WTO 통계, 인도네시아 정부 관보·통계,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정리

• 인도네시아 진출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인증

- 대표적으로 식약청(BPOM) 인증, 기술표준(SNI) 인증, 보건부 의료기기(ALKES) 인허가가 있으며, 인증이 없는 경우 수입 통관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진출 시 필수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 해외 인증 준비 경험이 많지 않은 기업의 경우 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다수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인증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사전에 면밀한 대비 필요

〈인도네시아 주요 인증 세부 내용〉

인증명	SNI	BPOM	ALKES/PKRT
인증마크			
허가기관	Bureau of Standard Nasional (BSN, 인니 국가표준기구)	Badan POM (BPOM, 인니 식약청)	Kementerian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인도네시아 보건부)
성격	의무	의무	의무
주요 적용 제품	철강, 전자기기, 공산품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ALKES), 건강보조기구(PKRT)
신청 주체	제품 수입업체	제품 유형별 유통 허가(PSB)를 보유한 제품 수입업체	의료기기 유통 허가(IPAK)를 보유한 제품 수입업체
획득 소요기간	2개월~1년	2개월~2년	2개월~1년

인증명	SNI	BPOM	ALKES/PKRT
획득 소요비용 (제품당)	USD 10,000~20,000 (실사비용 포함)	USD 7000~5,000	USD 1,000~5,000
유효기간	4년	3년(화장품), 5년(일반)	5년
타국 인증 상호 인정 여부	미인정	미인정	미인정

주: 대항업체 포함 기준이며, 품목별로 기간 및 비용 상이
 자료: 인도네시아 보건부, 식약청, 국가표준기구 등

• 2024.10월 이후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의무가 되는 할랄 인증

- 2019.10월부터 새로운 할랄 인증 제도 시행에 따라 모든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이 의무화되었지만 담당 기관인 할랄보장청(BPJPH) 시스템 준비와 세부 시행 규칙 마련 위해 2034년까지 할랄 인증 의무화 계도기간 설정
- 2021년 정부 규정(PP No. 39, 2021)을 통해 할랄 인증 제도에 대한 혼선이 해소되었고, 특히 식음료에 대한 계도기간은 2024.10월 종료
- 하지만 2024.10월 인니 정부는 현지 소기업 및 영세기업, 그리고 외국에서 수입된 식음료의 경우 최대 2년 할랄 인증 의무를 유예
- 이에 따라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식음료 제품들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도 유예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견 및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식음료, 도축 서비스에 대해서는 10월 18일부터 할랄 인증 의무화를 이행하고 있음
- 2023.11월 BPJPH는 한국이슬람중앙회(KMF)·한국할랄인증원(KHA)과 상호 인정 협정(MRA)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KMF는 식품, 음료, 도축, KHA는 식품, 음료에 대한 상호 인정이 체결되었음
- 비아이씨할랄코리아(BIC)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또한 인니 할랄보장청(BPJPH)과 MRA를 체결. 2024.10월 기준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 중
- MRA를 체결한 기관별 상호 인증 품목이 상이한바,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품목군을 고려하여 기관 선정 필요
- 상호 인정 협정 기관의 인증서는 바로 자율 사용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BPJPH에 소정의 절차와 비용을 납부하여 해외할랄인증서의 등록 신고가 필요. 신고 절차 후 등록받은 제품의 할랄 로고 사용에는 한국 할랄 로고의 단독 사용은 불허되며 인도네시아 할랄 로고와 해외 할랄 로고를 같이 사용하여야 함

〈할랄 인증 세부 정보〉

인증명	할랄 인증																						
인증마크	  <p>[기존 로고(좌), 신규 로고(우, '22.3.1부터 사용)]</p>																						
인증기관	Badan Pentelenggara Jsminan Produk Halal(BPJPH, 할랄보장청)																						
성격	의무(할랄 여부 표기)																						
주요 적용 제품	<p>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생활용품 등 물품 전반</p> <table border="1"> <thead> <tr> <th>제품 유형</th><th>계도기간</th></tr> </thead> <tbody> <tr> <td>식품(식음료)</td><td>2019.10.17~2024.10.17</td></tr> <tr> <td>전통의약품, 건강보조식품</td><td>2021.10.17~2026.10.17</td></tr> <tr> <td>의약품(OTC)</td><td>2021.10.17~2029.10.17</td></tr> <tr> <td>향정신성 의약품 제외 의약품</td><td>2021.10.17~2034.10.17</td></tr> <tr> <td>화장품, 화학, 유전공학제품</td><td>2021.10.17~2026.10.17</td></tr> <tr> <td>의류, 헤드기어, 액세서리</td><td>2021.10.17~2026.10.17</td></tr> <tr> <td>가정용품, 이슬람 종교의식 도구, 문구류, 사무용품</td><td>2021.10.17~2026.10.17</td></tr> <tr> <td>의료기기(A등급)</td><td>2021.10.17~2026.10.17</td></tr> <tr> <td>의료기기(B등급)</td><td>2021.10.17~2029.10.17</td></tr> <tr> <td>의료기기(C등급)</td><td>2021.10.17~2034.10.17</td></tr> </tbody> </table>	제품 유형	계도기간	식품(식음료)	2019.10.17~2024.10.17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식품	2021.10.17~2026.10.17	의약품(OTC)	2021.10.17~2029.10.17	향정신성 의약품 제외 의약품	2021.10.17~2034.10.17	화장품, 화학, 유전공학제품	2021.10.17~2026.10.17	의류, 헤드기어, 액세서리	2021.10.17~2026.10.17	가정용품, 이슬람 종교의식 도구, 문구류, 사무용품	2021.10.17~2026.10.17	의료기기(A등급)	2021.10.17~2026.10.17	의료기기(B등급)	2021.10.17~2029.10.17	의료기기(C등급)	2021.10.17~2034.10.17
제품 유형	계도기간																						
식품(식음료)	2019.10.17~2024.10.17																						
전통의약품, 건강보조식품	2021.10.17~2026.10.17																						
의약품(OTC)	2021.10.17~2029.10.17																						
향정신성 의약품 제외 의약품	2021.10.17~2034.10.17																						
화장품, 화학, 유전공학제품	2021.10.17~2026.10.17																						
의류, 헤드기어, 액세서리	2021.10.17~2026.10.17																						
가정용품, 이슬람 종교의식 도구, 문구류, 사무용품	2021.10.17~2026.10.17																						
의료기기(A등급)	2021.10.17~2026.10.17																						
의료기기(B등급)	2021.10.17~2029.10.17																						
의료기기(C등급)	2021.10.17~2034.10.17																						
신청 주체	제품 제조사(생산설비가 인증 대상)																						
할랄 심사기관	LPPOM MUI(국내외), Sucofindo(국내), Surveyor Indonesia(국내) 등 3개 기관																						
프로세스	 <p>[해외 심사 LPH 기관] - LPPOM MUI - Sucofindo Indonesia - Surveyor Indonesia</p> <p>*Lembaga Pemeriksa Halal(LPH):심사기관 출처 : BPJPH Nomor 40 tahun 2022</p>																						
획득 소요기간	21~41일(서류 및 할랄 제품 공정에 문제가 없는 경우)																						

인증명	할랄 인증		
획득 소요비용* (인증당)	구분	내용	비용(루피아)
	프로세스	(현지) 신규 할랄 신청	300,000~12,500,000
		(현지) 기존 할랄 인증 연장	200,000~5,000,000
		(해외) 할랄 인증 신청	12,500,000
		(해외) 기존 할랄 인증 연장	5,000,000
		해외기관 발급 할랄 인증 등록	800,000
	품목별 최대 단가	재료 및 공정이 간단한 제품	3,000,000
		가공식품, 화학, 미생물 관련 제품	6,468,750
		식품 첨가제	7,652,500
		유전자 변형 제품	5,412,500
		제약, 화장품, 및 생물 관련 제품	5,900,000
		백신	21,125,000
		젤라틴	7,912,000
		소모품과 그 포장	3,937,000
		서비스	5,275,000
		레스토랑, 케이터링, 카페 등	3,687,500
		도살장	3,937,000
자료: Keputusan Kepala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Nomor 141, Tahun 2021			
유효기간	4년(기존 MUI 할랄 확인서-Hala Decree 유효기간은 4년, 2년 단위 감사)		

주: 대행업체 활용 시 품목별로 기간 및 비용 상이
 자료: PT. Green Nature Farm(무역관 인증 자문), Peraturan Pemerintah(PP) Nomor 39, Tahun 2021

〈기관별 인증 품목〉

연번	기관명	소재지	인증 품목	비고
1	한국할랄인증원(KHA) (Korea Halal Authority)	대전	식음료 (food, beverage)	MRA 체결 완료
2	한국이슬람중앙회(KMF) (Korea Muslim Federation)	서울	식품, 도축 서비스 (food, slaughtering service)	MRA 체결 완료
3	비아이씨할랄코리아 (BIC Halal Korea)	부산	식품, 의약품/제약, 화장품, 소비재, 물류 창고 (food, drugs/pharmaceuticals, cosmetics, use goods, storage services)	MRA 체결 완료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
4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Korea Testing Certification Institute)	군포	식품, 의약품/제약, 화장품, 화학제품, 생활용품 (food, drugs/pharmaceuticals, cosmetics, chemical products)	MRA 체결 완료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

자료: 할랄보장청(<https://bpjph.halal.go.id/data/hln/>)

- (공급망) 인니는 니켈, 주석 포함 다양한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된 원자재 부국
 - 자바(석탄, 니켈, 다이아몬드), 수마트라(주석, 보크사이트, 석탄 등), 술라웨시(니켈), 파푸아(동) 등 인도네시아 전역에 분포
 - 특히 니켈과 주석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매장량을 보유

〈인도네시아 주요 광석 매장량〉

광종	매장량	세계 순위	비중	활용 분야
니켈	5,500만 톤	1위	42%	배터리 양극재, 철강
주석	80만 톤	1위	17%	전자제품
코발트	60만 톤	3위	7%	배터리 양극재
보크사이트·알루미나	10억 톤	6위	3%	알루미늄 정제
구리	2,400만 톤	10위	3%	인쇄회로, 합금석

자료: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3,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4

- 풍부한 매장량을 바탕으로 광물 산업은 전체 GDP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 중 하나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2020년 광물 산업은 주춤했으나 2021년 및 2022년에는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른 견고한 성장세 유지
- 인니 정부는 광물 수출 금지 정책 시행하여 자국 내 제련소 건설 유도
 - 2020년 니켈 원광에 대한 수출 금지를 시행하였으며, 2023.6월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 시행. 구리, 철, 납, 아연 등 정광에 대해서도 2024.12월까지 수출 금지 정책을 유예
 - 니켈은 제련 후 수출되며, 보크사이트는 가공되어 알루미늄, 알루미나, 수산화알루미늄 등 다양한 형태로 수출됨. 주석은 부가가치가 높은 주석괴 형태로 수출되고 있음

〈니켈 및 제품(HS 75) 주요 수출 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21	2022	2023	2024.8(누적)
전체	1,284	5,978	6,816	4,938
1위	일본(960)	중국(4,489)	중국(4,946)	중국(3,802)
2위	중국(312)	일본(1,241)	일본(1,284)	일본(696)
3위	미국(8)	한국(107)	노르웨이(398)	네덜란드(144)
4위	인도(1)	말레이시아(71)	네덜란드(165)	싱가포르(102)
5위	싱가포르(0.9)	노르웨이(62)	한국(11)	한국(91)

자료: IHS Markit(2024.11)

〈주석 및 제품(HS 80) 주요 수출 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21	2022	2023	2024.8(누적)
전체	2,442	2,389	1,784	771
1위	싱가포르(509)	중국(765)	중국(648)	인도(205)
2위	네덜란드(372)	싱가포르(407)	싱가포르(281)	중국(149)
3위	한국(281)	인도(292)	인도(267)	한국(122)
4위	인도(257)	한국(233)	한국(133)	싱가포르(102)
5위	일본(254)	일본(193)	일본(98)	일본(42)

자료: IHS Markit(2024.11)

〈구리광과 그 정광(HS 2603) 주요 수출 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21	2022	2023	2024.8(누적)
전체	5,386	9,243	8,326	5,898
1위	일본(1,537)	일본(2,283)	일본(1,886)	일본(1,769)
2위	중국(963)	중국(1,774)	중국(1,862)	중국(1,496)
3위	한국(726)	한국(1,638)	한국(1,260)	인도(807)
4위	인도(440)	인도(873)	인도(931)	한국(766)
5위	대만(381)	대만(569)	스페인(641)	스페인(404)

자료: IHS Markit(2024.9)

다. 투자

□ 인도네시아 외국인 직접투자(FDI) 동향

- 2023년 FDI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503억 달러로 역대 최대 투자 유치액을 기록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 중
 - 2023년 전 세계 FDI 금액은 전년 대비 2% 감소하였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8% 감소했음에도 對인니 FDI는 전년 대비 10% 증가하며 강세를 보임
- 인도네시아 정부의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 정책이 광물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며 FDI 유입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됨
 - 니켈과 같은 주요 광물의 현지 가공 및 제련소 개발을 통해 정부는 다운스트림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2019~2023년 인도네시아 FDI 추이〉

(단위: 억 달러)

2019	2020	2021	2022	2023
282	287	311	456	503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2024.11)

- **싱가포르, 중국, 홍콩, 일본 등 상위 4개국이 전체 FDI의 67%를 차지**
 - 국가별로는 싱가포르가 전년 대비 16% 증가한 154억 달러로 가장 많은 투자를 했으며, 이어 중국이 전년 대비 10% 감소한 74억 달러 투자

〈對인도네시아 투자 상위 국가〉

(단위: 억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1위	싱가포르(65)	싱가포르(98)	싱가포르(94)	싱가포르(133)	싱가포르(154)
2위	중국(47)	중국(48)	홍콩(46)	중국(82)	중국(74)
3위	일본(43)	홍콩(35)	중국(32)	홍콩(55)	홍콩(65)
4위	홍콩(29)	일본(26)	미국(25)	일본(36)	일본(46)
5위	네덜란드(26)	한국(18)	일본(23)	말레이시아(33)	말레이시아(41)
6위	말레이시아(14)	네덜란드(14)	네덜란드(18)	미국(30)	미국(33)
7위	한국(11)	말레이시아(10)	한국(16)	한국(23)	한국(25)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2024.11)

□ 지역 및 산업별 투자 동향

- **자바섬 위주 투자 비중이 높은 가운데, 자원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투자지 다양화 추세**
 - 2024.9월 기준 자카르타와 수라바야 등 주요 대도시가 있는 자바섬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짐
 - 2020년부터 말루쿠, 술라웨시, 리아우 등 자원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

〈2023~2024년 인도네시아 주요 지역별 투자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23		2024.9(누적)	
구분	지역	투자액	지역	투자액
1	서부자바	8,284	서부자바	7,450
2	중부술라웨시	7,244	중부술라웨시	6,369
3	북부말루쿠	4,998	자카르타	6,124

연도	2023		2024.9(누적)	
구분	지역	투자액	지역	투자액
4	자카르타	4,830	북부말루쿠	3,540
5	동부자바	4,741	반튼	3,201
6	반튼	4,452	동부자바	2,767
7	리아우	2,042	중부자바	1,664
8	중부자바	1,564	리아우 제도	1,559
9	남부수마트라	1,479	발리	1,263
10	동부칼리만탄	1,333	리아우	1,172
-	총합	50,268	총합	43,626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2024.11)

- 제조 및 인프라 분야 투자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서비스 업종 투자 증가

〈2023~2024년 인도네시아 주요 산업별 투자액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23		2024.9(누적)	
구분	분야	투자액	분야	투자액
1	금속	11,787	기초금속	10,185
2	교통, 창고, 정보통신	5,615	교통, 창고, 정보통신	3,977
3	화학, 제약	4,805	광산	3,859
4	광산	4,715	화학, 제약	3,225
5	제지, 인쇄	3,431	제지, 인쇄	2,650
6	전기, 가스, 수도	2,742	기타 서비스	2,503
7	부동산	2,575	부동산	2,336
8	식음료	2,263	식음료	2,196
9	운송	2,046	전기, 가스, 수도	1,841
10	농식품, 농장	1,945	전자기기	1,692
-	총합	50,268	총합	43,626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2024.11)

□ 투자(현지 진출) 애로 요인

- 행정 처리에 있어 불확실성 존재
 - 투자부나 중앙정부에서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투자 인허가를 쉽게 승인해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건축허가 등은 지방정부 소관

- 지방정부로부터 개별적으로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투자 결정 후에 불확실성이 존재

※ 행정 불확실성 예시 [인터뷰: PT. Doowang Consulting]

- 인도네시아 투자부에서 가스 인프라 투자 유치를 위해 K사에게 지원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 명확한 지원 약속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진출 지연

• 급속도로 상승하는 현지 숙련 인력·대졸자 임금에 따른 채용 애로

- 인도네시아 최저임금은 옴니버스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11월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주별로 정하고 있음
-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자카르타의 올해 최저임금은 4.4백만 루피아(약 36만 원) 수준이나 이는 국가 기초 교육만을 이수한 인력인 경우이며 학사 학위를 보유한 신입사원은 이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음
- 현지 HR 전문 기업인 PT. Cahaya Research 대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력직 급여(근무 경력 5년 이상) 인상률은 33% 수준으로,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24%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함(업종별·역량별 차이 존재)
-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만 생각하고 현지 진출하는 경우 적합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현지 인력 채용시장 동향 [인터뷰: PT. Cahaya Research]

- 인도네시아 근로자 임금은 업종별, 근무 형태별, 경력 등에 따라 상이
- 쉽게 인력 대체가 가능한 단순 서비스·제조업종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 다만, 대졸 초임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600만 루피아(48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력 5년 이상 직원의 경우 서비스업은 1천만 루피아(80만 원), 제조업은 900만 루피아(72만 원) 선으로 보임. 서비스업은 일반 제조업에 비해 개인의 역량이 성과로 연결돼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더 많은 편
- 다만 위의 급여는 대략적인 수준임. 경력직의 경우 실제 업무 역량에 따라 급여가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고, 한국인과 비슷한 수준의 역량을 기대하는 경우 한국인에 준하는 급여를 지불해야 채용이 가능
- 가끔 새롭게 진출한 기업들을 보면 급여 지출을 아끼기 위해 금액 기준으로 직원을 채용해 기대에 못미치거나 설사 역량 있는 직원을 낮은 금액에 채용했다고 해도 해당 직원은 정당한 대우를 못 받았다고 생각해 빠른 시일 내 이직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 이에 따라 급여를 조금 더 주더라도 역량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초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더불어 구직자들에게 좋은 기업의 기준은 급여와 법으로 보장한 국민건강보험(BPJS) 외 추가 의료보험(사보험)과 교통비 및 식대와 같은 제반 수당 여부로, 해당 부분도 구인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위 부분은 PT. Cahaya Research HR 업무 주요 지역인 수도 자카르타와 주요 도시를 통해 파악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업종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구직 시 참고용으로만 확인 바람
- 실제로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인도네시아인이 경력에 대한 전문성이 한국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보여 경력이 부족하더라도 태도나 적극성 등을 보고 채용하는 경우도 존재
-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은행을 통해 채용자의 신용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많은 직원들이 온라인 대출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들은 신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채용자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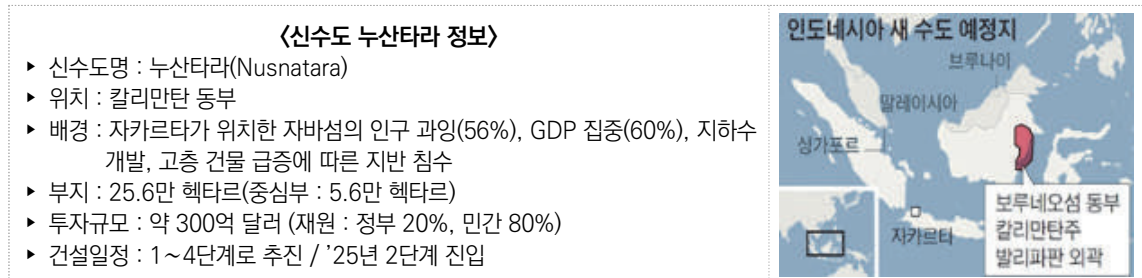
라. 프로젝트

□ 신수도 건설

• 신수도 법제화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2월 15일 신수도에 관한 법률(2022년 제3호)을 공포
- 신수도 이전은 자카르타 과밀화에 따른 지반 침수, 교통 체증 등을 타개하기 위해 2019.8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발표하며 추진
- 수도 이전 계획은 핵심 국정과제로 야심차게 출발했으나, 코로나19로 일정이 지연되었음. 하지만 이후 2022년 2월 신수도법 제정, 3월 신수도청 신설, 2023.10월 신수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 신수도 건설을 적극 추진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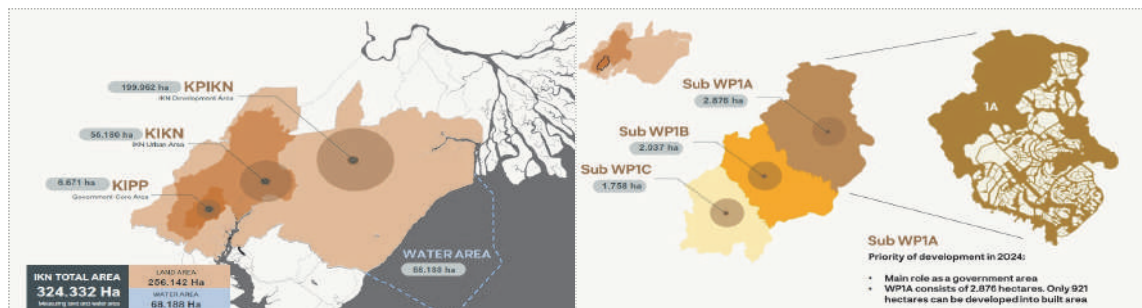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 2024년부터 마스터플랜에 따라 4단계로 개발

-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 명칭을 '누산타라(Nusantara, 군도)'로 명명하고, 신수도를 뜻하는 공식 용어를 'IKN(Ibu Kota Negara)'으로 정함
- 총 토지 면적은 25만 6,142헥타르로, 정부핵심구역(KIPP, 6,671 Ha), 신수도구역(KIKN, 56,180 Ha), 신수도개발구역(KPIKN, 199,962 Ha) 등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개발 예정

〈신수도 부지 개발 계획〉



자료: GICC 2022(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 인니 신수도부 장관 발표 자료('22.8)

• **민간 투자 유치**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신수도 건설과 인프라 구축 소요예산을 466조 루피아(약 300억 달러)로 추정하며, 이 중 약 20%를 국고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민간 또는 민관 합작을 통해 조달할 계획

〈신수도 건설 및 인프라 구축 자금 조달 계획〉

분야	비율	소요 예산	예산 자원
Basic Service Infrastructures	19.2%	89조 4,700만 루피아	국고
Presidential Residence and Strategic Security Facilities			
Police/Military Official Residence			
Land Clearance			
Green Open Space			
Military Bases			
Public Housing	26.2%	122조 900만 루피아	민간 투자
Education Facilities			
Science Techno Park			
Enhancements on Connectivity Infrastructures (Air, Sea, Land)			
Healthcare Facilities			
Shopping Malls	54.6%	254조 4,400만 루피아	민관 합작 투자
MICE (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and Exhibition)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ative Government Offices			
Infrastructures Not included in the National Budget			
Education and Healthcare Facilities			
Museums and Correctional Facilities	54.6%	254조 4,400만 루피아	민관 합작 투자
Other supporting Public Facilities			

자료: 인도네시아 재무부(Kementerian Keuangan)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모든 중앙정부 기관을 신수도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국정 연설 등에서 신수도 프로젝트의 연속성과 중요성을 강조
- 프라보워 수비안토 당선인은 신수도에서 열린 첫 내각회의(2024.8.12)에 참석해 신수도 프로젝트 지속 추진을 밝힘. 그러나 그의 주요 공약인 무상급식 시행에 매년 450조 루피아(287억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어서,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신수도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제기함

• **2024.8월 기준, 1단계 개발 목표 중 90% 완료, 전체 단계의 20% 달성**

- 조코위 대통령은 7월 말부터 누산타라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8월 17일 독립기념일 행사를 누산타라와 자카르타에서 동시 진행

- 민간 자본으로 약 56조 루피아(36억 달러)가 투자되어 총 55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
- 신수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1단계 개발 목표의 90%를 달성하였으며, 2024년 내 예정대로 1단계 개발 마무리

〈신수도 주요 재정사업 현황〉

연번	프로젝트명	기간	시행사	규모
1	고속도로(3A, 3B, 5A)	'22.12~'24.6	Hutama Karya 등	4.6억 달러
2	대통령궁	'22.12~'24.8	Wijaya Karya	0.8억 달러
3	Sepaku Semoi 댐	'22.12~'24.6	Adhi Karya 등	0.2억 달러
4	KIPP 내부도로(동쪽)	'23.1~'24.3	Wijaya Karya 등	0.5억 달러
5	폐기물처리장	'23.2~'24.12	Brantas Abipraya	0.4억 달러
6	공무원 주택단지	'23.4~'24.12	Adhi karya 등	5.9억 달러
7	정부 부처 사무실	'23.4~'26	Pembangunan Perumahan 등	2.6억 달러

자료: 현지 언론사 종합

□ 향후 민간 투자 유치 확대가 프로젝트 성공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 2024.8월 기준, 정부 재원으로 83조 루피아(53억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민간 재원은 56조 루피아(36억 달러)가 투입되었음
 - 투입 가능한 정부 재원이 총사업비의 20% 규모인 93조 루피아(59억 달러)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민간 투자 유치 규모가 성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현재까지 신수도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기업들이며, 외국 기업들도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였지만 실제 투자로는 많이 이어지지 않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규정 정비
 - 2024.7월 ▲투자자 인센티브 ▲토지사용권 ▲건물 사용권 ▲공공 및 상업시설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 제75호 발표

□ 한-인도네시아 신수도 협력

- 한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1.2월 인도네시아 주재 29개 공공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 ‘인니 수도 이전 협력 팀코리아’를 출범하였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인니 국민평의회 회장, 국회의장 등과 ‘한-인니 협력망’을 구축하여 양국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음

- 2022.7월 양국은 수도 이전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 국토교통부와 인니 공공주택사업부는 수도 이전·개발 기술협력 양해각서 개정 의정서를 체결
- 2022.8월 인도네시아 신수도청장은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신수도 관련하여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중
 - 2023.3월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중심으로 건설,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분야 50여 개 민간 기업과 LH, 수자원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공기업으로 구성된 수주지원단을 인도네시아에 파견하여 인도네시아 신수도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본격 추진

□ 스마트시티 개발 및 구축

- 기후변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시티 개발을 적극 추진 중
-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는 ①스마트시티 표준 제정, ②탄소 중립 실현, ③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 핵심 과제로 지정
 - 신수도에 적용될 스마트시티 표준을 2025년부터 전 도시에 적용할 예정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종류】

- ①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신도시 개발형) : '45년까지 행정수도를 칼리만탄으로 이전하는 40조 원 규모(정부 20%, 민간 80%)의 프로젝트로 '45년 인도네시아가 목표로 하는 GDP 7조 달러, 세계 5위 경제 대국 달성을 위한 정부 핵심 과제로 지정
- ② 100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솔루션 제공형) : '45년까지 인도네시아 전체 도시를 스마트시티화하는 프로젝트로 자카르타, 마카사르 등 총 241개 도시가 참여 중

- 우리나라 포함 16개국 이상의 정부 및 민간 기업이 인도네시아 스마트시티 시장 참여 중
 - 우리나라는 행복청(정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공기업) 등과 LG CNS 등 에너지·환경·건설 분야 민간 기업 적극 참여 중
 - * LG CNS(신수도 청사진 설계), 행복청·한국주택도시공사(신수도 공무원 주택단지 건설), 한국수자원공사(신수도 상수도 건설), 현대엔지니어링(신수도 정유 설비 건설) 등

마. ODA

□ 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ODA) 동향

- 2022년 DAC 국가들의 對인니 ODA 지원은 22억 달러로, 전년 대비 6% 감소
 - 2022년 러-우 사태 발발로 DAC 국가들의 ODA가 우크라이나로 집중되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ODA 지원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

〈인도네시아에 대한 ODA 총액〉

(단위: 백만 달러)

2018	2019	2020	2021	2022
3,080	1,380	3,257	2,388	2,233

주: DAC 국가, 총지출액(Gross) 기준
자료: OECD Data Explorer(2024.9)

- 일본, 독일, 호주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ODA 공여국
 - 매년 순위의 변동은 있지만, 큰 흐름에서 일본, 독일, 호주가 DAC 국가들 중 가장 많은 ODA 지원을 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ODA 주요 공여국 순위〉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1위	독일(1,204)	일본(664)	일본(1,370)	일본(1,033)	독일(927)
2위	일본(637)	호주(188)	독일(997)	독일(448)	일본(591)
3위	프랑스(455)	미국(158)	프랑스(326)	호주(328)	호주(207)
4위	호주(263)	독일(130)	호주(184)	프랑스(197)	미국(127)
5위	미국(252)	노르웨이(48)	미국(168)	미국(154)	프랑스(100)
6위	한국(54)	한국(45)	노르웨이(59)	한국(65)	한국(98)
7위	노르웨이(48)	영국(43)	한국(51)	영국(41)	노르웨이(82)

주: DAC 국가, 총지출액(Gross) 기준
자료: OECD Data Explorer(2024.9)

□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지원 및 교류 현황

- 인도네시아는 2011년부터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3기(2021~2025) 중점협력국으로 지원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4년에는 총 91개의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인도네시아에 대한 ODA 확정액은 2,4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

〈인도네시아 ODA 규모 (확정액 기준)〉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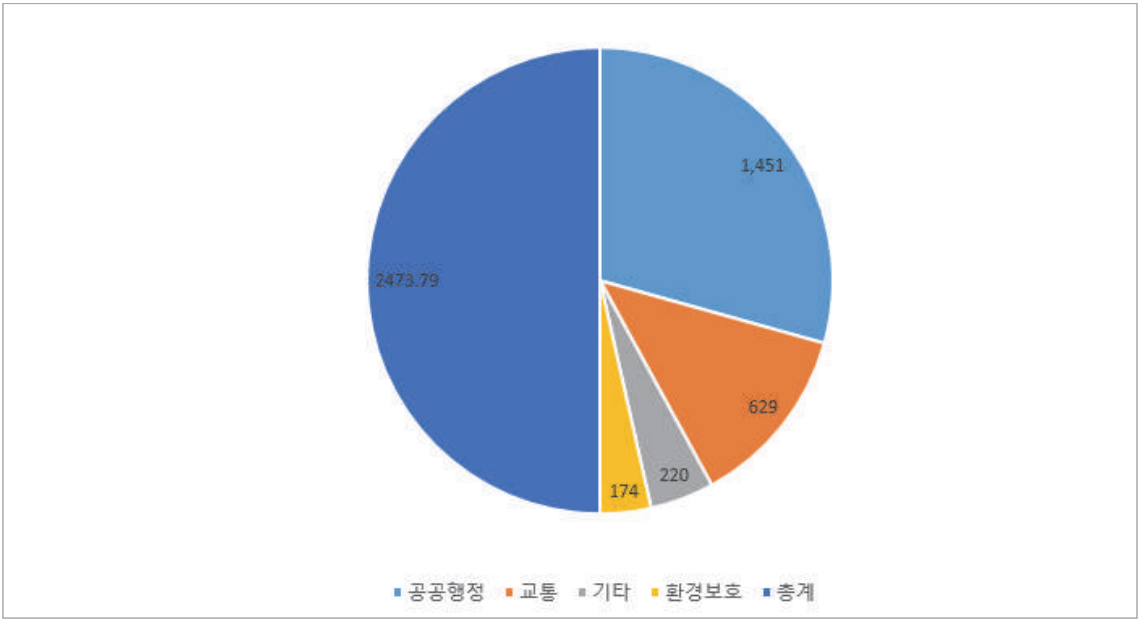
2023			2024		
양자 무상	양자 유상	합계	양자 무상	양자 유상	합계
509.5	681.3	1,190.8	673.2	1,800.6	2,473.8

자료: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인도네시아와의 중점 협력 분야는 공공행정, 교통, 환경보호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24년 ODA 확정액에서 공공행정 비중은 59%에 달함

〈중점 협력 분야별 ODA 규모 (확정액 기준)〉

(단위: 억 원)



자료: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2024년 공공행정 주요 사업〉

(단위: 억 원)

사업명	원조 구분	사업 구분	시작	종료	총액	확정액
인니 녹색기술 기반 혁신성장 프로그램 차관	양자 유상	신규	2024	2024	1,331	1,000
정부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양자 유상	계속	2023	2026	2,129	316

자료: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특히 KOTRA는 기획재정부 ODA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의 총괄기관 역할을 수행 중
 - KSP 사업은 2005년 시작된 이래 2024년까지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총 38개 사업(94개 주제)에 대한 정책 자문 및 공동 컨설팅, 역량 강화 연수 수행
 - 현지 개발 분야 총괄부처인 국가개발기획부를 중심으로 재무부, 중앙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 다양한 부처와 협력

□ 유망 협력 분야 : 신수도

- 다양한 유·무상 ODA를 신수도 이전 사업 진출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 가능
 - 2020년부터 한국 국토교통부와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을 시행 중
 - 한국 기획재정부와 KIND는 EIPP(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를 통해 신수도 종합계획, 자금 조달 방안, 에너지 전환 계획 등의 정책 자문을 제공 중
 - KOTRA는 2020년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신남방 주요국에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개소해 신도시를 포함하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발굴과 수주 지원 활동을 추진 중
 - 정부 간 협력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초기 시장 진출 기회를 창출하고, 현지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며, 현지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기회로 활용 가능

〈한-인도네시아 신수도 협력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구분	사업기간	인니 부처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및 시범사업 발굴	'20년 K-City Network	'20.7~'21.5	공공주택 사업부
신수도 공무원주택 시범단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21년 K-City Network	'21.9~'22.4	
신수도 개발 종합계획	'20/'21년 인도네시아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20.11~'21.9	국가개발 기획부
수도 이전에 따른 자카르타 수도권 경제 개발 전략 수립			
신수도 자금 조달 방안 1차			
신수도 에너지 전환 마스터플랜 및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			
신수도 개발계획 2차 - 토지 확보, 활용 및 실행관리조직 운영	'21/'22년 인도네시아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22.1~'22.11	국가개발 기획부
신수도 자금 조달 방안 2차 - 이전 적지 매각 및 국부펀드 활용			
신수도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 및 숲도시 개발계획			
지능형 교통체계 및 전기차 대중교통 도입 기본구상			
신수도 에너지 전환계획 2차 - 가스 활용 최적화 로드맵			
발릭파판·사마린다 폐기물 관리 및 상수도 사업			
신수도 지속 가능한 식량농업계획			

프로젝트명	구분	사업기간	인니 부처
신수도 자금 조달 방안 3차 - 신수도 스마트시티 투자 유치 전략 수립	'22/'23년 인도네시아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22.11~'23.11	국가개발 기획부
신수도 에너지 전환 실행 방안 1차 - 동칼리만탄 태양광 발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수도 인근 Kariangau 지역 산업단지 건설/운영 예비타당성조사			
신수도 인근 Buluminung 산업단지 지역 마스터플랜 및 스마트 산업단지 계획 수립			
신수도 및 인근 지자체 간 상생 발전전략 수립	'23/'24년 인도네시아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23.11~'24.11	국가개발 기획부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 탄소 중립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 글로벌 물류 허브 구축을 위한 항만 운영전략 수립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 저탄소사회로의 경제 전환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자료: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홈페이지(2024.9)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가. 교역

□ 한국과의 교역 동향

〈한국의 인도네시아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9(누적)
수출	6,313	8,550	10,216	9,140	5,952
수입	7,595	10,725	15,735	12,146	9,643
무역수지	△1,282	△2,175	△5,519	△3,006	△3,691
총 교역액	13,908	19,275	25,951	21,286	15,594

자료: 한국무역협회(2024.11)

• 2023년 한·인니 교역액은 약 21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8% 감소

- 2023년 수출액은 9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 감소하였으며, 수입액은 121억 달러로 전년 대비 23% 감소하여 교역액이 감소함

- 수출 1위 품목인 정제유(HS 2710) 수출액이 전년 대비 46% 감소하였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휘발유·경유 수요 둔화 및 인니 정부의 바이오 연료 혼합 정책 강화로 인도네시아 정제유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

* 2023년 인도네시아 정제유(HS 2710) 수입은 전년 대비 13% 감소

- 한편 수입 1위 품목인 석탄(HS 2701, 유연탄), 2위 천연가스(HS 2711) 수입이 각각 23%, 34% 감소.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석탄 수입금액이 감소

* '23년 글로벌 석탄 가격은 전년 대비 26% 하락(Bloomberg('24.1.))

• 2024.9월까지 한·인니 교역액은 약 15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

- 2024년 누적 수출액은 5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하였으며, 수입액은 9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함

- 인도네시아 자동차 업황이 부진*하면서 자동차(HS 8703)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하였으며, 자동차 강판 또한 수출이 감소

*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구매력 약화 및 고금리 지속으로 자동차 업황 부진

〈한국의 10대 對인니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22		2023		2024.9(누적)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품목	수출액
1	석유제품	1,809	석유제품	965	석유제품	604
2	철강판	819	철강판	724	합성수지	504
3	합성수지	784	합성수지	567	철강판	495
4	반도체	547	자동차	513	반도체	361
5	편직물	335	반도체	453	정밀화학원료	269
6	합성고무	294	편직물	248	합성고무	209
7	정밀화학원료	245	정밀화학원료	235	편직물	193
8	자동차	208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229	자동차	158
9	기타석유화학제품	202	합성고무	214	자동차부품	120
10	건설광산기계	200	섬유및화학기계	213	기타석유화학제품	119
10대 품목 소계		5,443	10대 품목 소계	4,361	10대 품목 소계	3,032
총 수출액		10,216	총 수출액	9,140	총 수출액	5,952

주: 품목 구분은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2024.11)

□ 수출 성공 및 실패 사례

• (성공 사례) 인도네시아 국영기업과 287억 원 규모의 환경 플랜트 수출 성사

- D사는 2022.6월 인도네시아 최대 쓰레기 매립장인 반타르그방(Bantar Gebang)에서 하루 2천 톤의 폐기물을 분리·선별하여 700톤의 폐기물 고형연료(RDF)를 생산하는 설비를 수출하는 프로젝트 수주
 - * 인도네시아 국영기업과 2,100만 달러(한화 약 287억 원) 규모의 폐기물 에너지화(Waste to Energy) 설비 공급을 위한 계약 체결
- D사는 1997년 창업 이후 26년간 친환경 분야에만 집중해온 환경설비 전문 강소기업
- 2017년 신재생에너지 타당성 조사로 시작하여 2018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인도네시아에 직접 파일럿 설비를 설치·운영하면서 우수한 기술력과 브랜드 이미지 각인
- KOTRA를 통하여 지속적인 프로젝트 컨소시엄 구성, 파트너 물색, 시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 진출을 도모하여 5년 만에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

KOTRA 주요 지원 사항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2.2) 현지 파트너 발굴 등 인니 정부 프로젝트 수주 지원 * ('19) 현지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현지 잠재 파트너 발굴 지원 * ('19~'22) Bantar Gebang 매립지 프로젝트 관련 현지 법인 운영, 기술 이전 및 현지 규제 조사** 지원 ** 공공 프로젝트 진출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국산 부품 사용 요건(TKDN) 관련 국영 시험인증기관(Sucofindo) 핵심 인사와 미팅 주선('21.10) * ('22.2) 최종 프로젝트 수주 	 <p>컨소시엄 MoU 체결식 ('19.7월)</p>

- 현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플랜트산업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바이오매스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찾아 연구개발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으며, KOTRA 해외 지사화 사업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시장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 발굴 중

• **(성공 사례) 한국 밸브 기업, 주력 시장인 미국, 중국 시장에 이어 인니 시장 진출 성공**

- B사는 현재 주력 수출국가인 미주, 중국, 대만의 매출이 안정화되어 있으며, 매출액 쿼터 점프를 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국가를 신규 집중 타깃으로 설정, 현재 신규 고객 발굴에 집중
- B사는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을 위해 관련 산업(오일&가스, 석유화학 등) 규모가 큰 인니 시장을 동남아 시장 확대를 위한 집중 타깃 국가로 설정

(진입여건) 인도네시아는 오일&가스, 석유화학 플랜트, 발전소, 조선 등 관련 산업의 규모가 크게 형성되어 있어, 밸브 및 피팅류의 시장성이 큼

(진입전략) 소수의 과점 경쟁사들과 견줄 수 있는 뛰어난 기술력과 경쟁사 대비 30%가량 낮은 가격을 경쟁력으로 활용, 소수의 공급자 위주 시장에서 공급처 대체 수요 포착

- 신규 공급자 검토에 보수적인 업계 특성 및 B사 제품이 특허 기술인 만큼 제품 시연의 중요성으로 인해 전시회 또는 출장 등이 적합하나 B사는 코로나 상태로 인도네시아 신규 거래처 발굴에 답보 상태였으나, KOTRA 지사화 사업의 현지 전담 직원을 통해 바이어 발굴 및 현지 밀착 지원 추진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B사의 지원 수요에 대응하고자 업계 1, 2위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바이어를 타깃으로 지속적인 대체 수요 발굴, B사의 제품 시연이 필수적인 만큼 화상상담을 통해 제품 시연 및 화상상담 후 적시에 무역관 보유 샘플 송부를 통해 실제 성과 창출
- 바이어 P사는 석유 플랜트 프로젝트에 특화되어 있는 바이어로, 그간 밸브 및 피팅은 업계 1위인 경쟁사 제품만 사용해왔으나, B사와 화상상담상의 제품 시연을 통해 기술적 장점 확인 및 국내기업 신뢰 형성
- 화상상담 직후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은 이미 받아놓은 샘플을 바이어에 적시 송부하여 바이어 화상상담 직후에 실제로 샘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의 실제 바이어의 샘플 확인, 가격 협상 지원 등을 통해 최종 구매계약 체결

• **(실패 사례) 민감 품목(주류)에 대한 세관의 자의적 세번 분류로 통관 지연**

- 수출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출업체 측에서 KOTRA 자카르타 무역관에 문의
- 이전과 동일한 제품으로 수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통관 허가를 내주지 않음에 따라 현지 수입업자 측 물량 조달 문제 발생
- 통관 거부 사유는 소비세 부분의 문제로, 무슬림 인구가 87%라서 주류 수입 관련 규정은 매우 까다로운 편이며, 수입 통관 시 납부하는 수입 관세, 부가세, 법인세 이외에 국내소비세(CUKAI) 납부 필요
- 시기에 맞게 유통을 진행해야 하는 수입업자가 물품을 인도받지 못하며 납품 실패

나. 투자 진출

□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투자 개황

- 한국의 해외 자원 1호 투자처로 시작해 약 2,300개사가 현지 진출 중

〈우리 기업의 단계별 對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추이〉

Stage 1	Stage 2	Stage 3	Stage 4
노동집약적 산업 (1980년~)	생산거점 확보 (1990년~)	내수 공략 시장 발굴, 대형화 (2009년~)	내수시장 공략 지속 및 서비스 산업 (2012년~)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확보 목적	생산에 직결되는 원부자재 확보 및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한 Assembly형	소득 향상에 따른 내수시장 공략과 내수/수출에 대한 동시 타깃형 투자	현지 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회계, 법률, 금융 서비스 및 내수/수출에 대한 동시 타깃형 투자 지속

자료: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정리

- 2023년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해외 직접투자금액(FDI)은 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
 - 같은 시기 한국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FDI는 63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2% 하락, 이러한 흐름은 한국 전체 FDI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음을 보여줌

〈한국 기업 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개)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9(누적)
투자금액	1,842	1,640	2,298	2,543	2,429
투자건수	5,577	5,341	5,497	12,889	6,473
신규법인	82	65	79	97	38

주: 2024년 신규법인수는 2024년 6월 누적 기준임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투자금액, 투자건수, 2024.11), 한국수출입은행(신규법인, 2024.11)

- 한편 2023년 업종별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FDI 비중을 살펴보면 금융 및 보험업이 46%, 제조업 45%, 도매 및 소매업 6% 순으로 나타남
 - 제조업의 세부 분류를 살펴보면 1차 금속 제조업이 35%, 담배 제조업이 29%, 화학물질 및 제품 6%를 차지하였음
 - * 포스코와 크라카우스틸의 제2고로 냉연공장 신설 추진, KT&G의 인도네시아 2·3 공장 설립, 그리고 롯데케미칼의 라인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인도네시아의 높은 성장 잠재력과 한국계 기업의 활발한 투자에 발맞춰 국내 금융사들이 인도네시아로 대거 진출하고 있음

- 2024.4월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노부은행(Bank Nationalnobu) 지분 40%를 매입하는 인수계약을 체결하며 은행업에 진출
- 카카오뱅크는 첫 해외 투자처로 인도네시아를 선택, 인도네시아 디지털 은행인 슈퍼뱅크 지분 10.05%를 1,033억 원에 매입
- 2024년 9월 30일 양국 간 현지 통화 직거래(LCT)가 시행된바, 양국의 금융 기관들은 서로의 시장에 더 진출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임

〈국내 금융사의 인도네시아 진출 현황 (2024.3)〉

(단위: 개)

구분	은행	증권	보험	여전	합계
회사	7	6	6	8	27
점포	9	9	6	8	32
내용	[현지법인] 국민, 신한, 하나, 기업, 우리*, 산은, 수출입 [사무소] 산은, 수출입	[현지법인]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현지법인]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서울보증보험, 한화생명	[현지법인] KB국민카드, 비씨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KB캐피탈, 롯데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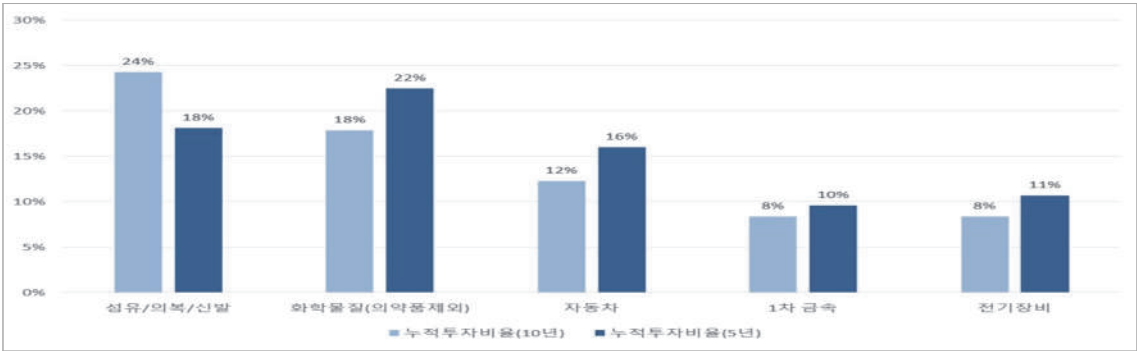
주: 우리은행 현지법인은 반동에 소재, 나머지는 모두 자카르타 소재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2024.9)

• 최근 10년간 한국의 對인도네시아 투자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경공업에서 첨단 제조업으로의 투자 전환이 두드러짐

- 과거 10년간 누적 투자금액과 최근 5년간 업종별 누적 투자금액을 비교하면, 최근 5년 동안 전통적인 경공업인 섬유, 의복, 신발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고부가가치 산업인 화학, 자동차, 전기장비 등의 투자 비중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한국의 對인니 제조업 누적 투자 비교〉

(단위: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재가공

□ 투자 진출 성공 및 실패 사례

• (성공 사례) 차별화된 제품을 기반으로 현지화에 성공하여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 A사는 멀티미디어 전자책 제작이 가능한 저작 도구를 개발하고, 전용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 잠재 바이어 발굴을 위해 여러 차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고, 현지 수요에 맞춘 인도네시아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추진
- 그 결과, 현지 교육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며 인니 시장에 진출함

• (성공 사례) 코로나19로 인해 포착한 신시장(헬스케어) 개척 기회

- L사는 1980년대 초반 인도네시아 지사 설립 이후 수출 트레이딩 외에 팜오일 농장과 수력발전 등 다양한 사업 수행 중
- 인도네시아 신사업 확장을 위해 유망 분야를 찾던 중 코로나19 발생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방역물품 관련하여 다양한 확보 요청을 받음
- 초기 PCR 진단 키트와 다양한 의료기기 기부를 진행하다 현지 코로나19 진단 시장 성장성을 보고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됨
- 이에 따라 한국에서 컨테이너 형태로 PCR 진단이 가능한 LAB 시설을 현지 재난방재청·보건부 협업을 통해 하나의 의료기기로 현지에 공수해 운영 시작
- 2023.10월 기준, 인도네시아 주요 지역에 총 3개 랩을 직접 운영, 술라웨시 지역에는 1개 랩을 기부해 소모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음
- 향후 PCR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단기기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고 진단 관련 다양한 사업 추진 중

• (실패 사례) 제품 특화 실패와 코로나19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사업 철수

- L사는 2011년 인도네시아 요식업에 진출한 이후 패스트푸드 및 커피 등 2개 브랜드에 대한 매장을 최대 35개까지 운영하였음
- 하지만 현지 시장에서 80%의 점유율을 기록하던 글로벌 기업(K사 및 M사)과의 경쟁 속에서, L사는 시장점유율이 1%를 넘지 못한 채 고전하며 매출 부진으로 매장 수를 축소
- 특히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되거나 영업시간이 단축되며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어 전격적으로 철수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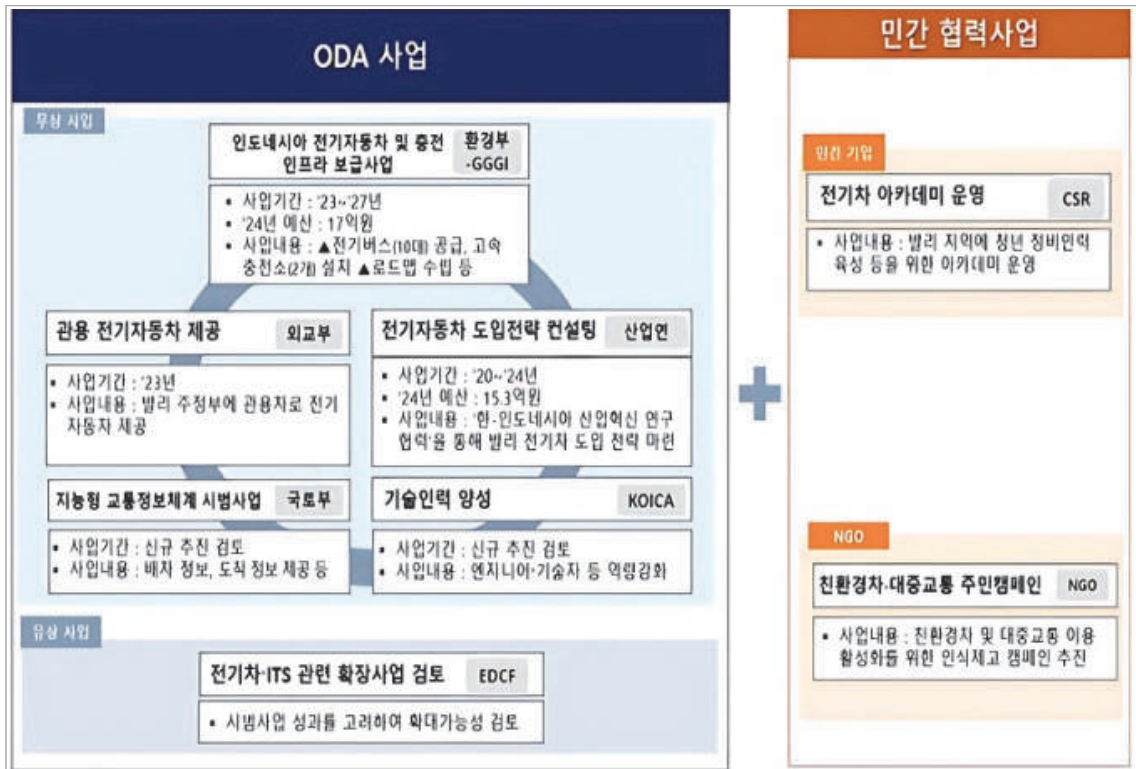
다. 협력 유망 분야

• (국가 간 협력 유망 분야) 전기차 생태계 협력

- 전기차 생태계란 전기차의 생산, 사용, 그리고 유지보수와 관련된 모든 산업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한-인니 정부가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분야임

- 2023.9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전기차 생태계 조성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국제 공동 연구 ▲정책 및 제도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기로 합의
 - 2023.5월 한-인니 모빌리티 협력센터 설치를 합의하였으며, 센터를 통해 전기차 정비 교육과 현지 운행 실증, 기업 바이어 미팅 지원 등 양해각서에서 도출된 세부 협력 사업들을 수행기로 함
- * '24년 상반기 개소 예정이었으나, 인니 대선 일정 및 설비 준비 문제로 하반기 개소 예정
-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인니 전기차 및 전기 이륜차 핵심 기술 표준을 선점하고 전주기 생태계 구축 지원을 위해 ODA 사업과 민간 협력사업이 결합된 인도네시아 전기차동차 패키지 추진 중

〈인도네시아 전기차동차 패키지〉



자료: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기업 차원의 협력 유망 분야) 사이버 보안 시장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모도르 인텔리전스(Modor intelligence)에 따르면 인니 사이버 보안 시장은 2024년 14억 3,000만 달러에서 2029년까지 연평균 24.2% 성장하여 2029년에는 42억 1,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이버 공격을 받는 국가 중 하나로, 사이버 안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
- 인도네시아는 2022년 기준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사이버 공격을 받았으며, 2023년에는 한 해 동안 약 3억 6,000건의 사이버 공격 시도를 받음

* 2024년 6월, 인도네시아 임시 국가 데이터 센터가 세계 최대 랜섬웨어 해커 집단 '록빗'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44개 정부기관을 포함해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 280여 개 기관의 서비스가 지연됨

- 2024.10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법률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손해배상 청구,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게 되어 인도네시아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솔루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은 여러 측면에서 진행 중이며, 현재는 역량 강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감안할 때 향후 협력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한-인도네시아 사이버 보안 관련 협력 및 지원 사업 현황

- 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인도네시아 국가사이버안전센터(BSSN)은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 협약 내용에는 사이버 침해 대응 지식 공유, 보안 기술 개발,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 전자서명 및 인증, 인적자원 교류 등이 포함됨
- ② 라온시큐어는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ID 서비스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식별 시스템을 제공하여 보안 인프라를 강화
- ③ NSHC는 PT 인터미디어컴과 파트너십을 맺고 효과적인 사이버 보안 교육으로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예정
- ④ KOICA는 ODA 사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사이버 보안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 중

• (공급망)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소 생태계로의 이행을 위해 노력 중

- 인니 산업부는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그린수소 로드맵을 작성 중, 2024년 연말 공개 예정
- 가스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서의 수소에 대한 인도네시아 내 수요는 실질적으로 부재하여 수소 수출시장 개발을 우선시하고 있음. PLN은 2028년까지 수소를 싱가포르로 수출하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현대차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가스 회사인 페르타미나는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을 하고 있으며
▲자바주에서 유기성 폐기물을 수소로 전환하는 솔루션 제공 ▲수소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 등 협력 예정

※ 강점을 살리고 열악한 환경 및 사업 장애 요인을 진출 기회로 승화(昇華)

- (역량 확대) 한류를 심분 활용해 청년·디지털 공약을 통한 시장 진출 기회 확대
- (강점 활용) GVC 관점에서 현지 생산·유통·판매를 통한 소비시장 집중 공략
- (기회 포착) 정부 지원 사업 참가를 통해 인프라, 친환경, 스마트 분야 진출 기회 포착
- (위협 대응) 지속 가능 발전, 틈새시장 직접 투자 진출을 통한 리스크 대응

1. PEST 분석

Political 정치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신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기존 정권의 정책 계승 여부는 주목 필요 •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인프라 확충,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규정 및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한-인니 CEPA로 무역환경은 개선되었으나, 자국 산업 고도화를 위한 자국우선주의 정책들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Economic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경제 성장은 민간 소비와 정부 지출이 주도 • 중산층 비중 감소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금리 조정으로 물가상승률과 환율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됨 •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광물 다운스트림 산업과 전기차 배터리 산업 육성에 주력
Social 사회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4위 규모의 인구와 71%에 달하는 생산가능인구로 인해 인구 보너스의 최고 구간을 통과 중임 • 젊은 인구 비중 증가로 디지털 기술 확산과 새로운 소비 패턴이 나타날 전망 • 전체 인구의 87%가 이슬람교도이며, 할랄 문화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Technological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강한 의지로 디지털 산업 육성이 추진되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 '23년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132개국 중 61위를 기록 • 정부의 스마트시티 추진에 대한 관심이 높음

2.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강 점(Strength)

-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술의 인지도와 경쟁력이 높음
- 우수한 디지털 역량 및 기술 보유

약 점(Weakness)

- 주요 경쟁국 대비 낮은 가격 경쟁력
- 현지화 및 로컬 파트너십 부족

기 회(Opportunity)

-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국의 전반적인 이미지가 제고
- 한-인니 양국 정부 간 다양한 협력 모멘텀

위 험(Threat)

- 인도네시아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수입 대체 기조 지속
-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한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간 중점 협력 신산업 분야 진출 추진 • 한류를 활용한 생활소비재 유통 및 판매 경로 다각화 	정부 간 협력 모멘텀을 활용, 네트워크 구축
ST 전략 (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신산업 선점 추진 • 양국 정부의 협력 모멘텀을 활용하여 신산업 핵심 기술 표준을 선점 	현지 진출/현지화 강화 (OEM 등)
WO 전략 (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 로컬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 적극 활용 • 양자 및 다자 FTA 활용, 가격 경쟁력 제고 •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지 시장 진출 고려 	한류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활용한 마케팅
WT 전략 (위험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동향 모니터링 및 현지 유망 파트너 발굴·협력 지속 • 인도네시아의 수입 대체 기조 정책에 대응하여 현지 진출 및 현지 소싱 추진 	중점 육성 산업 및 소싱 가능 분야 집중 공략

3.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인프라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간 추진되는 경제협력에서 파생되는 친환경, 스마트 산업 등에서의 기회 창출 • 프로젝트별 정책(인센티브, 진출방식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리스크 대응
E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인니 정부 간 전기차 생태계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파생되는 기회를 활용하여 현지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 수주 • 강화되는 국산 부품 사용 요건(TKDN)을 고려한 원자재 현지 소싱, 기술 이전 확대
소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음료) 한류를 활용한 마케팅을 통해 제품의 인지도 및 홍보 확대 • (화장품) 할랄 인증 및 BPOM 등 관련 수입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현지 진출 및 OEM 등 현지화 강화 고려 필요
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니 정부가 의료 보건 산업을 육성코자 실시하는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파생 수요 공략 • 역량 있는 현지 제조사와의 협업을 통해 시장 공략 • 원자재 현지 소싱 확대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입 대체 프로그램 대응
한류, 경제협력	양국 정부 간 협력 모멘텀과 한류의 높은 인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기회 모색

3-1. [인프라 프로젝트] 양국 간 협력 사업 검토, 현지 진출의 마중물로 활용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새로이 발표될 중기 계획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 방향성 예측 필요
- 신정부 정책동향 모니터링 및 현지 유망 파트너 발굴·협력 필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인니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는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 2025-2029 발표 예정**
 - RPJMN 2025-2029는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 인프라 확충,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 중기 국가 개발 전략으로, 이를 통해 신정부의 인프라 관련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 2024년 연말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5년간의 정책방향의 윤곽이 정해질 것으로 보임
- **인니 국영전력공사(PLN)는 2024~2033년 전력공급운영계획(RUPTL) 준비 중**
 - 전력공급운영계획은 향후 10년간 전력 수요 예측 및 공급 전략을 포함하는 인도네시아의 중장기 전력 공급 로드맵임
 - 해당 계획에는 재생에너지 비중 등 에너지 믹스 정책과 관련된 향후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 **인프라 개발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재정 제약이 변수로 작용할 것**
 - 신정부가 무상급식 프로그램과 식량 안보 강화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프라 프로젝트에 할당할 재정의 상대적 제약 전망
 - 이러한 제약 하에서 이전과 같이 정부 사업들은 정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한 민관 합작협력(PPP) 방식으로 발주될 것으로 보임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기존 사업 기회와 전략에 대한 재점검 및 조정 필요**
 - 2024년 10월 프라보워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부처 인사들의 조정이 예상되고 세부 정책 방향성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바, 우리 기업들은 기존의 비즈니스 파이프라인을 재점검하고 신규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정부에서는 EDCF, ODA 등 사업을 통해 발생된 프로젝트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
 - 이 외에도 KOTRA 등 관련 유관기관에서 현지 발주사 및 바이어 발굴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초기 진출 시 참고

•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지속 가능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 필요**

- 한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1.2월 인도네시아 주재 29개 공공기관 및 기업이 참여한 ‘인니 수도 이전 협력 팀코리아’를 구성하고, 같은 해 6월 인니 국민평의회 회장, 국회의장 등과 ‘한-인니 협력망’을 구축하여 양국 교류와 협력사업을 발굴 중
- 2023.3월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중심으로 건설,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분야 50여 개 민간 기업과 LH, 수자원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공기업으로 구성된 수주지원단을 인도네시아에 파견하여 인도네시아 신수도 프로젝트에 대한 수주 본격 추진

• **현지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현지 동향 모니터링**

- 공개되는 정부 재정 프로젝트의 경우 입찰 기한이 짧은 등 해외 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수요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 인도네시아 정부기관이 입찰 공고를 하는 경우 조달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인도네시아 신문 및 영자신문에 입찰 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 물품 조달은 정부 조달 사이트(www.lkpp.go.id)나 인니 조달 전문 협회(iapi- online.org)를 참고할 수 있으며, 건설 부문은 인니 공공 조달 입찰 사이트(www.pu.go.id)를 통해 확인 가능
- 또한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에서 연간 발간하는 그린북(Green book), PPP북(PPP Book) 등을 통해 당면한 프로젝트 개요 확인이 가능하고 블루북(Blue book)을 통해 중장기 계획 파악 가능
 - * 중장기 계획인 프로젝트 중 원조 공여기관이 지원 의사를 표명한 프로젝트에 대해 그린북으로 연간 발간 중. PPP북은 민관합작 가능 프로젝트에 대해 연 단위 공개
- 해당 과정에 대해 한국의 주요 건설 관련 공공기관에서도 정리하여 배포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지속적인 정보 동향 파악 필요
 - * 해외조달정보센터, 해외건설정보종합서비스(icak.or.kr) 등
- 입찰에 성공한 한국 기업 대상 납품을 추진하는 경우 한국 기업 자체 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3-2. [EV] 양국 정부 간 협력으로 조성된 우호적인 환경 활용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 규모는 ASEAN 1위이며, 인니 정부는 EV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 중
 - 세계 4위 인구 규모,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EV 수요는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전동화를 초기 단계로,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으며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도 높은 편
- 엄격해지는 국산 부품 사용 요건(TKDN)에 대응하여 현지 원재료 소싱 고려 필요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한-인니 정상회담(2023.9월) 등 정부 간 협력 강화로 진출에 우호적인 여건 조성**
 - 2023.9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전기차 생태계 조성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국제 공동 연구 ▲정책 및 제도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
 - 2023.5월 한-인니 모빌리티 협력센터 설치를 합의하였으며, 센터를 통해 전기차 정비 교육과 현지 운행 실증, 기업 바이어 미팅 지원 등 양해각서에서 도출된 세부 협력 사업들을 수행기로 함
 - * '24년 상반기 개소 예정이었으나, 인니 대선 일정 및 설비 준비 문제로 하반기 개소 예정
 - EV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ODA 사업과 민간 협력 사업이 결합된 전기자동차 패키지 추진 중
- **수요 대비 전동화율이 초기 단계로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인프라 구축 수요도 높음**
 - 인니는 2023년 완성차 시장 규모 ASEAN 1위(105만 대)이며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25%까지 확대할 전망
 - 인니 이륜차 등록 대수는 1.3억대에 달하나, 전기이륜차는 1.5만 대로 0.01% 수준이며 향후 시장 성장성이 큼
 - 인니 주정부는 탄소 감축의 일환으로 주 단위 탄소 감축 목표를 배정받아 지방공기업 등을 통해 EV 생태계 구축 노력 중
- **한국, 중국 등 다양한 국적의 기업들이 전기차 생태계에 참여하는 각축장**
 - 잠재력이 높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들이 경쟁 중이며, 인니 정부가 인도네시아 현지 투자를 약속한 해외 전기차 기업에게도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더 많은 업체들이 현지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임
 - 현대차는 2022년 3월부터 인도네시아 델타마스 공장에서 전기차 양산 시작
 - 2024년 7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공장은 배터리 양산 시작

- 한국기업 진출은 크게 ①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현지 생산, ②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 현지 생산, ③ 포스코의 전기차량용 강판 생산 등으로 나뉨
- 중국은 Wuling과 Cherry가 현지에서 전기차를 생산 중이며, BYD도 13억 달러를 투자해 15만 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공장을 착공 예정
- 베트남의 Vinfast는 2억 달러를 투자해 연간 5만 대 전기차 생산능력을 갖춘 인니 공장 착공식을 개최
-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 중 프랑스의 Citroen은 완전 조립 분해 방식(CKD)으로 현지에서 전기차 조립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한-인니 정부 간 협력 모멘텀으로 창출되는 기회를 모색하여 현지 시장 진출

- 한-인니 모빌리티 협력센터가 2024년 하반기 설치 예정으로, 센터를 통해 전기차 정비 교육과 현지 운행 실증, 기업 바이어 미팅 지원 예정
- 한국 정부는 해외 실증·인증 지원을 위해 원스톱 현지 실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현지 실증 지원사업을 확대할 예정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인니 전력청 산하 인증기관의 시험소로 지정되어 현장 대응을 지원하고 있음
- 한-인니 전기차 협력 ODA 사업을 활용하여 본 프로젝트 수주의 마중물로 활용
- KOTRA 등 기관에서 개최하는 E-모빌리티 수출 상담회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현지 시장 점점 확대

• 강화되는 규제에 발맞춰 현지에서 원자재 소싱 및 기술 이전을 통한 진출 고려

- 인니 정부는 E-Mobility 종류에 따라 국산 부품 사용 요건(TKDN)을 설정하였으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강화되는 구조임

〈종류별 TKDN 적용 기간 및 최소 비중〉

종류	기간 및 최소 비중
이륜 및 삼륜 전기차	2019~26년 : 40% 2027~29년 : 60% 2030년부터 : 80%
사륜 이상 전기차	2019~21년 : 35% 2022~26년 : 40% 2027~29년 : 60% 2030년부터 : 80%

자료: 2023년 대통령령 제79호(Perpres No.79 2023)

- 강화되는 TKDN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원자재를 소싱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술 이전을 통한 현지 진출을 염두에 둘 필요 있음

- EV 충전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상황이며, 주정부가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중
 - 인니 정부는 2030년까지 이륜차용 배터리 스왑 충전소(BSS) 19만 개, 전기차 충전소 약 5만 개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24년 상반기 기준 전기차 충전소는 1,582개, BSS는 2,182개에 불과함
 - 주정부의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EV 생태계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며, EV 충전 인프라를 중심으로 많은 프로젝트가 파생될 것으로 보임

3-3. [의료기기] 정부의 산업 육성 의지 활용, 현지 협업을 통한 시장 공략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건강 인식 변화와 수요 증가를 진출 기회로 전환

- 세계 4위 인구 규모, 소득수준 지속 향상, 보건법 개정, 의료수준 개선을 위해 정부는 큰 노력 중

* 인도네시아 보건부, '20~'24년 인도네시아 총 보험 지출액 연평균 18.2% 증가 전망

※ 현지 기업과의 협업(기술 이전 등)을 통해 현지 시장 진출 및 공략

- 현지 생산이 어려운 품목 집중, 패키징 계약 체결, 현지 네트워킹이 가능한 파트너사 협업을 통한 현지 진출

※ 원자재에 대한 현지 소싱 확대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입 대체 프로그램 대응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의료수준 개선을 위해 인니 정부는 의료보건 산업 적극 육성 중

- 정부는 2023.8월 옴니버스 보건법을 제정, 2024년 7월 정부령 제28호를 발표

- 정부령 제28호는 보건법 개혁을 구체화하며, 특히 외국인 의사의 인니 내 의료행위와 관련된 자격증 및 면허증 발급 절차를 규정

- 외국인 의사가 인니 내 의료행위가 가능한 방법은 ▲의료특구 내 진료, ▲의료 기술 이전 ▲해외 법인 100% 투자로 제한됨

- 의료특구 밖에서도 장관 허가가 있는 경우 의료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3개월간의 의료행위가 허가됨

- 외국 의료법인이 100% 지분 투자(투자 하한액 1조 루피아)로 인니 내 병원을 설립할 경우 외국인 의사를 채용할 수 있음

- 기간 측면에서 외국인 의사의 의료행위는 최대 2+2년으로 제한되어 있음

- 외국인 의사들의 인니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 의료진 진출도 활발해지면서 한국산 의료기기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자국 의료보건 산업 육성을 위해 인도네시아 진입 장벽 강화

- (할랄 인증) 2026년부터 전 의약품 및 일부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 Non-Halal 로고 표기는 시장에서 차별적 요소로 작용

- (수입 불가 리스트) 79가지 제품군에 대해 수입 불허, 다만 현지 수급 문제 또는 현지 제품과 기능 및 재료가 다르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 수입 가능

- (TKDN) 2022년 TKDN 적용 의료기기 품목 대폭 확대, 수입 제품을 현지 생산제품으로 대체하거나 부품을 들여와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전환 추세

- (BPJS) 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의료보험에 포함된 의료기기는 2년마다 정부 조달기관을 통한 입찰이 이루어지며, 2년마다 가격 인하 압력이 발생하는 등 변동성에 노출됨

• **의료기기 주요 플레이어는 병원·검사기관(구매자) 및 수입사(수입유통)**

- (검사기관) 병원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먼저 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병원 진료를 받는 문화가 있음

* 주요 검사기관 : Prodia, Kimia Farma, Pramita, Citro, Biomedika, Parahita 등

- (병원) 사설병원과 국립병원으로 구분되며, 사설병원이나 비보험 서비스는 해당 사항이 없으나,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품목은 정부 조달 시스템을 통해 구입
- (수입사) 보건부 의료기기 유통허가(IPAK, Izin Penyalur Alat Kesehatan) 취득 필수

• **현지 반입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및 규제**

- 의료기기 및 건강에 관련된 생활기기는 인도네시아 보건부 등록(ALKES) 의무
- 보건부 등록은 현지 수입업체 위임 또는 현지 투자 법인 설립을 통해 가능
- 한국과 마찬가지로 생명과의 직결성 정도에 따라 A~D등급으로 분류되며 D로 갈수록 요청하는 서류가 복잡하고 등록 기간 및 비용 증가

〈위험도에 따른 의료기기 구분〉

등급	의료기기 구분	심사 등록비 (천 루피아)
Class 1/A	오용을 하더라도 환자에 유의미한 결과를 야기하지 않는 의료기기	1,500
Class 2a/B	오용하면 환자에게 유의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치명적이지 않은 의료기기	3,000
Class 2b/C	환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료기기 등록 시 위험평가서, 안전성 입증평가서 제출	3,000
Class 3/D	환자, 간호사 등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제품, 유통 전 위험평가서, 안전성 입증 서류, 임상시험 결과 등 제출	5,000

자료: 인도네시아 보건부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인도네시아에서 자체 조달이 어려운 기기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수요 존재**

- 인도네시아 주요 수입 품목은 호흡기기, 촬영장치, 영상진단기기 등이며, 인공관절 분야는 가장 높은 수입 비중을 차지함
- ▲코로나19 ▲디지털 전환 ▲군도 국가의 특성에 따라 원격의료 시장이 급성장, 원격의료와 연계되는 진단기기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원격진단 지원용 웨어러블 진단기기, 특수 진단기기 등(Alodokter)

• **인도네시아 시장 및 문화에 맞는 진출전략 수립 필요**

- 토달 솔루션 방식 제품 마케팅 추진 : 현지 병원은 특정 디스트리뷰터와 패키지 계약을 맺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방식으로 현지 파트너사와 협업 필요

- 주요 네트워크 직접 관리 : 현지 파트너사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직접 인도네시아 출장을 진행하고 현지 의사들을 한국에 초대해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
-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 현재 TKDN 정책 강화 추세에 따라 현지 로컬 비중을 확대하고 환경 친화 인증 및 할랄 인증을 획득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의료기기 네트워크 관리 방법 (D사)

- 의료기기 구입에 있어서 최종 사용자인 의사들의 의사 결정권이 크며, 1명의 저명한 의사의 제자들이 사단을 만들어 수술 기구나 기법들을 그대로 사용
- 이런 민간 의료기기 협회들과의 네트워크는, 에이전트에게 판매를 위임했더라도, 직접 관리가 필요. 직접 네트워크 구축 차 가끔씩 현지 방문하는 것을 추천
- 리베이트 영업이 아직까지 많이 있기에 가격 경쟁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자만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고안할 필요도 있음

3-4. [소비재] 한류를 적극 활용, 현지 수입 규제 강화 추세 고려 필요

시장 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한류의 높은 인지도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
 -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한국산 식음료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
 - 화장품도 한류 열풍으로 한국산 화장품의 인지도 및 인식 개선
- ※ 할랄 인증 등 수입 규제 및 인허가 제도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시장 및 진출 요건 관련 사전 준비 필수
 - 할랄 인증 제품 수요 증가 전망, 선제적 인증 취득 또는 현지 생산업체와 협업으로 대비

□ 주요 이슈 및 트렌드

① 식음료

- 인도네시아 식음료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수요 급증
 - 인도네시아 식품 시장 규모는 2024년 2,502억 달러로 예상되며, 2029년까지 매년 약 6% 성장이 전망됨
 - 2024.6월 기준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1억 3,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출 품목으로 ▲커피조제품(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 ▲음료(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 ▲라면(전년 동기 대비 25.8% 증가)
 - Statista가 인도네시아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6%가 한국 식품을 즐긴다고 응답해 K-Food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음
 - 인도네시아에서 인기가 많은 한국 식품으로는 떡볶이, 라면류, 김밥, 김치 등이며, 최근에는 한국 과일 또한 인기가 상승하고 있음
- (식품 트렌드) 선제적인 할랄 인증을 취득하여 인도네시아 식품 시장에 진출
 - 불닭볶음면은 2017년 선제적으로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취득하여 타 수입 라면과 차별성을 확보했으며, 특화된 맛과 품질로 현지 국민 라면으로 자리매김
 - 2022년 파리바게뜨와 뚜레주르는 인도네시아 베이커리 시장에 경쟁적으로 진출, 양사 모두 할랄 인증을 취득하며 인니 시장 로컬라이제이션에 집중하고 있음
- (음료 트렌드) 단맛이 강한 비탄산음료 위주 시장, 소주 수요도 지속 증가
 - 현지에서는 가당 음료 수요가 높아 바나나, 딸기 맛 등 한국산 가공 우유를 선호하며, 인지도 높은 캐릭터를 활용한 보로로 음료 등 수요 증가

- 소주 등의 인기도 상승하고 있으나, 가격을 크게 낮춘 현지 생산 소주가 한국어 라벨을 부착해 주로 유통되며, 포도맛, 복숭아맛 등 다양한 맛을 첨가한 소주가 인기를 끌고 있음

* '24.7월 기준, 對인도네시아 소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

② 화장품

• 인니 화장품 시장은 향후에도 성장이 기대되는 잠재력이 높은 시장

- 색조 화장품 시장은 2023년 7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9% 증가

• (K-Beauty) 인도네시아인이 선호하는 수입 화장품은 한국 제품

- 인도네시아는 베트남에 이어 한국 화장품을 선호하는 두 번째 국가로, 한국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한 한국산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

〈인도네시아 화장품(HS Code 3304) 주요 수입 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20	2021	2022	2023	2024.8(누적)
1	중국	44	62	131	218	124
2	한국	46	59	40	57	64
3	프랑스	19	31	30	30	17
4	태국	19	24	28	27	15
5	미국	25	28	22	27	12
전체		257	309	329	443	279

자료: IHS Markit(2024.11)

•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 인니에서 필수적인 식약청 인증(BPOM)은 발급에 오랜 시간(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2026년 할랄 인증 계도기간이 종료되면 할랄 인증도 받아야 함
- 마켓 테스트로 활용하던 해외 역직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음.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미화 100달러 미만의 제품에 대해서는 모든 인증을 취득해야 통관이 가능하게 변경됨
- 인니 정부는 자국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수입 규제를 강화하여 일부 품목들은 사전 수입 승인(PI), 선적 전 검사(LS), 기술적 고려사항(Pertek) 적용 대상임

•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은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할랄 및 유기농 인증을 받은 현지 브랜드가 한국 화장품과 유사한 디자인 및 기능으로 현지 생산을 통해 가격을 낮추며 빠르게 시장을 공략 중
- 현지 위탁생산(OEM)을 통해 물류 비용을 낮춘 한국 제품들이 현지 시장을 공략하고 있음
- 저가 중국 화장품이 인도네시아에 빠르게 진출하는 추세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① 식음료

• 한류 이미지를 활용한 마케팅 추진

- 2022.6월 인도네시아 건강식 라면 브랜드 레모날로는 NCT Dream을 모델로 기용하여 매출액이 급증했으며, 현지 국민 라면인 Mie Sedaap은 최시원을 모델로 내세워 맞서는 등 현지 브랜드의 한류 마케팅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2024.11월 인도네시아 라면 1위 브랜드인 인도미(Indomie)는 한국 라면 시리즈 3종을 출시하면서 뉴진스를 모델로 발탁

• 정부 기관 지원 사업 참가를 통해 초기 시장 개척 지원 타진

- KOTRA, AT, 한국무역협회 등 다양한 기관이 현지 진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적은 비용으로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 마케팅이 가능
- 특히 AT에서는 농식품 관련 해외 인증 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 진출의 장애물로 여겨지는 인증 분야의 일부 비용을 지원

• 현지 진출을 위해 현지 식약청 인증(BPOM) 취득 필수, 할랄 인증 의무

- BPOM은 제품별로 등록하며, 한 개의 현지 기업만이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지 수입상이 특정 제품에 대해 독점권을 행사함. 이에 따라 현지 파트너사 선택에 매우 신중해야 함
- 2024.10월 식음료 분야 할랄 인증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유예를 결정하였음
- 할랄 인증 신청 시 서류 준비와 검사를 위해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현지 생산 시설에서 돼지고기 관련 시설을 전면 분리하는 등의 시설 점검이 필요

② 화장품

• 화장품 수출 계획 수립 전, 인증에 대한 고려 필요

- BPOM은 인증 취득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제품별로 등록하기 때문에 한 개의 현지 기업만이 등록할 수 있음. 그 결과 현지 수입상이 특정 제품에 대해 독점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현지 파트너사 선택에 매우 신중해야 함
- 2026년 할랄 인증 계도기간 종료. 할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Non-Halal”이라 표기해야 함. 현지 유통은 가능하나 할랄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현지 사정을 고려할 때 선제적인 계획 수립 필요

-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장기적으로 현지 진출/현지화 강화 고려 필요
 - 현지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에 비해 한국에서 수출하는 화장품은 물류 비용 등을 이유로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 불리할 수 있음
- 한류의 높은 인지도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추진

품목명 1		
콘택트렌즈	선정사유	• 뷰티렌즈는 K-POP과 K-Drama 팬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시장 성장성 또한 향후 높을 것으로 보임
	시장동향	• '24년 인도네시아 콘택트렌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7% 성장한 4,920억 루피아로 추정 • 코로나로 인한 격리가 해제되며 뷰티 렌즈 등 콘택트렌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경쟁동향	• 미국의 아큐브 등 글로벌 브랜드 및 중국 등과 경쟁 • 또한 Pink Rabbit 같은 현지 브랜드는 한국산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고 있음
	진출방안	• 주 소비 대상이 미용렌즈 관심도 높은 MZ 세대에 집중 - 98%가 오프라인을 통해 구매되나 일부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구입하는 비중도 증가 추세 • 인도네시아 보건부 규정상 의료기기 C등급에 속해 보건부 인증을 위한 관련 서류 사전 구비 필요 - 위험도에 따라 A에서 D로 구분하며, D가 가장 위험한 제품
품목명 2		
안과용 기기	선정사유	• 인도네시아는 가처분 소득 증가, 근시와 백내장 등의 안과 질환 발병률 증가로 안과용 기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시장동향	• '23년 인도네시아 안과 전문의 수는 약 2,381명으로 '17년 대비 116% 증가 • 최근 5년간('19~'23) 인도네시아 안과용 기기 수입은 연평균 10.2% 증가
	경쟁동향	• 인도네시아의 안과용 기기 수입시장 점유율 1, 2위는 미국과 일본
	진출방안	• 현지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네트워크 발굴·관리
품목명 3		
초음파 영상 진단기	선정사유	• 의료 시장 확대로 고성능 의료기기 수요 증가
	시장동향	• 출생률이 2명 이상인 인도네시아에서 산부인과 및 소아과 질환 초음파 진단용으로 수요 증가가 전망되나, 고품질 저가격의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 심화 추세
	경쟁동향	•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제품이 시장 점유 • 주요 경쟁사: GE Healthcare, Pfizer, Siemens 등
	진출방안	• 현지 수입 유통사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진출 • 현지 생산이 어려운 첨단 품목 집중

품목명 4		
기초화장품, 메이크업용 제품류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NS 마케팅과 한류 열풍으로 한국산 화장품 인기 상승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뷰티 인기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한국 콘셉트의 우수한 품질 및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현지 생산 브랜드가 비약적 성장 • 화학 성분보다는 식물 추출 천연 성분이 들어간 기초 제품을 선호,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 우세 • BPOM 취득 후 정식 통관을 통해 수출해야 함 • '26년부터 화장품 할랄 인증 표기 의무화, 인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수출 가능하나, '논 할랄' 표기로 인해 차별받을 수 있음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경쟁사: 로레알, 더바디샵, 시세이도, Wardah, 바이어스도프(니베아), 유니레버, Scarlett, Somethinc, Whitelab, Azarine 등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역량 있는 유통사와의 협업을 통한 시장 진출 • 현지 할랄 및 무해 성분에 민감한 트렌드, 할랄 인증 및 유기농 인증 취득과 더불어 관련 마케팅 시행
품목명 5		
비스켓(과자)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인기에 따라 한국 식품 및 과자 수요 급증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드라마에 나온 식품 중 과자 수요도 함께 증가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니,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한국 제품 점유율 높음 • 주요 경쟁사: Indofood, Garudafood, Kraft Foods 등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POM 및 할랄 인증 사전 대비 • 정부 지원 사업 활용하여 시장 진출
품목명 6		
라면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과 함께 한류 열풍으로 인한 인기 지속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열풍으로 한국산 라면에 대한 인기 지속 • 한류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라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니산 현지 라면이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할랄 인증 취득한 한국의 삼양(불닭볶음면)도 3~4위 수준 유지 • 주요 경쟁사: Indofood 등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POM 및 할랄 인증 사전 대비 • 한류를 심분 활용한 마케팅 추진(드라마 및 인플루언서 물품 홍보)

품목명 7		
소주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슬림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류 콘텐츠를 통해 소주 등 주류에 대한 관심 확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열풍으로 현지인들 사이에서 한국산 소주 인지도 확대 • 소주 음용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 2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소주 음용률은 2020년 74.8%로 2016년 대비 65.8%p 증가해 홍콩에 이어 2위를 기록 - 수도 자카르타에 진로 참이슬을 전면에 내세운 참이슬 카페 운영 시작('21.11) - 포도맛, 복숭아맛 등 단맛을 첨가한 소주 제품이 인기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Smirnoff Red, 현지 바람소주 등 다양한 제품 판매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POM 및 할랄 인증 사전 대비 •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주류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편으로 높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선납법인세, 그리고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며, 특별소비세는 알코올 도수별로 세금 부과 비중이 달라 사전에 파악 필요
품목명 8		
가당 음료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콘텐츠에 노출된 음료들을 중심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인기 증가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인니 수출이 '22년 16백만 달러에서 '23년 19백만 달러로 16.7% 증가 • 인도네시아 설탕세 시행 및 식음료 분야 할랄 인증 의무화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국가들의 탄산음료 제품, 즉석음용음료(RTD)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POM 및 할랄 인증 사전 대비 • 현지 역량 있는 유통사와의 협업을 통한 시장 진출
품목명 9		
자동차 부품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내 자동차 제조 허브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된 부품 수요가 급증 • '24년 고금리 지속에 따른 구매력 약화로 인니 소비자들은 차량 구매 대신 수리하는 경향이 강해짐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생산을 위한 부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및 중국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음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진출 우리 완성차 제조사와의 협력 • 유럽 현지 기업과 협력을 통해 토요타, 미쓰비시 등 경쟁국 완성차 업체 대상으로 신규 판로 개척

품목명 10		
플랜지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공장 및 제조 건설 사업 추진에 따라 필수 장치인 플랜지 수요 증가 전망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유 시설이나 석유화학 시설 등 배관이 많이 사용되는 장치 산업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2025년 인도네시아 정부의 장치 산업 역량 강화 프로젝트 예상에 따라 수요 증가 예상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 기업 제품과 한국, 중국, 이탈리아 등 제품 사용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기업 프로젝트 수주 동향 면밀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수주 국가에 따라 관련 부품사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동향 파악 필요 • 강화되는 인도네시아 정부 규제 대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수입 규제 물량 축소 추세, 국산 부품 사용 우선 비중 등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수입 대체를 추진하고 있음 - 하지만 한국 기업의 EPC 프로젝트나 ODA의 경우 해당 규제를 극복할 수 있어 이와 같이 증가하는 인니 정부의 규제에 대비하는 전략 수립 필요

품목명 1		
의료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보험 적용 확대, 의료 클러스터 육성정책으로 수요 확대 예상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옴니버스 보건법을 계기로, 외국인 의사의 인니 내 의료행위와 관련된 규정이 마련됨 - 발리 사누르 등 의료특구 내에서 진료는 허용되며, 의료특구 밖에서도 일정 조건 하에 의료행위 허가 병원 시설 확충 프로젝트가 민간협력사업(PPP) 형태로 발주되며, 해당 시설은 국립암센터, 대학 병원 등임 애플리케이션 기반 온디맨드 헬스케어 서비스 등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이 발전하고 있으나 관련 기술 인력 부족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Siloam Hospital, Medistra Hospital, SOS Medika 등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출 전 합작 파트너를 신중히 물색하고 의료진 및 주요 협회 네트워크 발굴 필요 헬스케어 공급망, 의료기관 의료기록 전산화, 원격진료, 고성능 통신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IT 분야 협력 제조·수출과 연계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분야 진출
품목명 2		
금융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대면 금융 서비스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기술 수요 ↑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세안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의 빠른 성장 인도네시아 국민의 금융기관 접근성이 낮아, 전자화폐 서비스가 발달. 또한 라이드헤일링 서비스의 발달로 인해 대표적인 라이드헤일링 서비스 내에서 사용되는 오보(Ovo)와 고페이(Go-Pay)가 전자화폐 주도권을 잡으면서 핀테크 시장이 개편 '24년 9월 30일부터 양국은 현지 통화 직거래(LCT)를 도입, 이를 통해 거래비용이 절감되어 금융 협력 강화가 예상됨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니은행: BRI, BNI, BCA, Bank Mandiri, BTN, BII 등 외국계 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UOB, 미쓰비시 도쿄 등 핀테크 업체: Buka Dompot, Doku, Inapay iPay 88, iPayMu 등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 추천, 할부금융, 핀테크 기반 지불 결제 서비스, 카드 사업 등 스타트업 설립을 통해 진출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진출을 위해 액셀러레이터나 그룹사 등 투자자 물색을 권장 인도네시아 정부 은행·보험 업무 효율화 컨설팅 사업에 참여

품목명 3		
콘텐츠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류 문화의 핵심 분야로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인기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모바일 콘텐츠 시장 잠재 가치는 1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웹툰과 애니메이션은 인도네시아 내 한류 열풍 영향이 가장 많이 미치는 분야 중 하나임 - 2024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호감 비율이 86.3%로 나타나, 조사 대상 26개국 중 1위를 기록함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콘텐츠 대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주로 진출 • 인도네시아 로컬 콘텐츠 비중은 최근 들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지만, 한국-미국-중국 등 해외 콘텐츠가 더 인기를 끌고 있음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시장에 능통한 역량 있는 파트너 발굴 - 100% 외국인 지분 투자가 가능하나, 현지 민감한 콘텐츠 이슈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파트너사와 협업 권장 • 사전 지식재산권 등록 등 법적인 문제 대응방안 마련 •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센터와 같은 정부 협력 사업을 활용하여 초기 시장 공략
품목명 4		
사이버 보안	선정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사이버 보안 시장은 향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 - 시장이 '24년 14억 달러에서 '29년까지 연평균 24% 성장하여 4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이버 공격을 받는 국가 중 하나
	시장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비가 증가하는 추세임
	경쟁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대기업과 현지 기업이 혼재된 상황으로 IBM, CISCO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인니 현지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음 • 우리 기업들의 경우 진출 초기 단계로 역량 강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진출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로컬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 활용 - 한국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과 사업 역량을 합작법인에 이식하고, 현지 기업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업 기회를 발굴 • 현지 사이버 보안 전시회 및 포럼에 참석하여 현지 트렌트 파악 필요

첨부 3

'25년도 KOTRA 주요 사업 (잠정)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현지 대기업 수요맞춤형 파트너링 확대	EV 수출 및 기술협력 상담회	'25년/미정
	분야별 특화 핀포인트 상담회	'25년/미정
한류 확산 활용 소비재 시장 진출 심화	인도네시아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	'25년/미정
헬스케어 분야 시장 수요 적극 대응	GVC 재편 대응 한국 유망기업 상담회	'25년/미정
	보건의료 협력 증진을 위한 웨비나, 상담회	'25년/미정
양자 및 다자 경제 협력을 통한 수출 기회 창출	IK-CEPA, RCEP 등 FTA 활용 설명회	'25년/미정
	인니 진출 기업 간담회	'25년/미정
인니 수도 이전 및 스마트시티 협력 기회 발굴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 참여 기회 발굴	'25년/상시
	스마트시티 온라인 로드쇼	'25년/미정

첨부 4

'25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	-	-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	-	-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Indonesia International Motor Show	'25.2	
Indonesia International Furniture Expo	'25.3	
Indonesia International Auto Parts, Accessories & Equipment Exhibition	'25.5	
Food & Hotel Indonesia	'25.7	
International Baby Products & Toys Expo	'25.8	
Food Ingredients Asia Indonesia	'25.9	
Oil & Gas Indonesia	'25.9	
Manufacturing Indonesia	'25.12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정윤재	과장	자카르타 무역관	021-574-1522	yjchung@kotra.or.kr
2	Arindra Fauzan	Specialist	자카르타 무역관	021-574-1522	arindra@kotra.or.kr
3	Samuel Edgar	Specialist	자카르타 무역관	021-574-1522	samuel.edgar.x2.25@gmail.com
4	Fariidha	Specialist	자카르타 무역관	021-574-1522	fariidha@kotra.or.kr

2025 인도네시아 진출전략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비즈니스 환경 분석

진출전략

